



지명

제1장 마을 이름의 유래

제2장 강 · 산 이름의 유래



제장 마을 이름의 유래

라경준집필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땅에도 이름이 있다. 땅 이름에는 그 고장의 역사(歷史)와 애환(哀歡)이 담겨 있다. 지명(地名)에는 지명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다른 지명과 구별되는 고유성(固有性)이 있다.

지명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전해주는 것은 그 고장의 역사다. 도중에 변화된 지명들은 바뀐대로 역사 변천(變遷)의 일면을 보여준다. 또한 바뀌지 않은 지명은 맨 처음 역사를 원형대로 지니고 있는 것이 보통이니, 지명은 그 고장의 역사 변천을 따라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¹⁾

우리 조상(祖上)들은 글자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한자(漢字)를 빌어 땅이름을 표기해 왔다. 처음에는 비록 한자(漢字)를 빌어서 표기했지만, 우리말식 지명을 쓰기도 했다.²⁾

그러나 신라(新羅)가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한 후인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전국 대부분의 땅이름은 한자(漢字)로 개악(改惡)됐다. 심지어 한자(漢字)를 빌어 우리말식으로 표기했던 땅이름까지도 당(唐)나라식인 2자 한자화(二字漢字化)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러한 땅이름의 개악(改惡)은 계속되어 고려(高麗) 태조(太祖) 23년(940) 주·군·현(州·郡·縣)의 이름마저도 당(唐)나라식인 2자 한자화(二字漢字化)로 변화(變化)됐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들어와서 각종 관찬사서(官撰史書)의 편찬(編纂)이 활발해지면서 마을의 이름도 한자화(漢字化)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땅이름이 많이 훼손됐다.

한편 1910년 8월 일본제국주의는 우리나라를 병탄(併呑)했다. 소위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고자 전국의 군·읍·면(郡·邑·面)을 통폐합(統廢合)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지명은 일본식(日本式) 지명으로 다시 한번 크게 훼손됐다.

1) 지명유래집편찬위원회, 『地名由來集』,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7.

2) 잉근내군(仍斤內郡, 괴산군 : 고구려), 일모산군(一牟山郡, 문의면 : 백제), 을아단현(乙阿旦縣, 단양 : 고구려) 등

제1절

제1절 증평읍(曾坪邑)

1947년 왜식(倭式) 동명은 변경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명은 한자화(漢字化)로 인하여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3) 1914년 3월14일자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참조. 강신옥, 『증평·괴산 근·현대사』, 푸른나라, 2001, 212쪽에서 재인용.

4)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따르면 청안은 청당현(淸塘縣) 또는 청연현(淸淵縣)이라고 불리었다. 고구려 때 도서현(道西縣), 신라시대에 도서현(都西縣), 고려 초에 도안현(道安縣)이 되었으며, 조선 태종 5년(1405) 도안과 청당현의 인구가 적음에 두 현을 합쳐 청안현을 삼고, 태종 13년(1413)에 현감(縣監)을 두었다. 위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교통의 요충지로 주목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金顯吉 編著, 『忠淸北道 輿地集成』, 忠北 郷土史研究協議會, 1994.

5) 조선시대 중경(中京)과 각도(各道), 각읍(各邑)의 호수(戶數)와 인구수(人口數)를 수록한 호구통계기록(戶口統計記錄)으로, 정조(正祖) 13년(1789)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호(元戶)는 물론 남녀수(男女數)까지도 기록하고 있으므로 조선조(朝鮮朝)의 호구변화(戶口變化)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金榮振, 朴文烈, 『槐山郡文獻資料集(地理志 飢譯篇)』, 槐山文化院, 1997, 389~404쪽.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조선시대까지 기록된 각종 기록에는 증평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이것은 증평면³⁾이 1914년에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이전 증평은 청안(淸安)⁴⁾ 땅에 속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 등의 기록을 보면 청안은 본래 신라 땅이었다.(당시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다.)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청연(淸淵)으로 이름을 고치고, 괴양군(槐壤郡 : 현재의 괴산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23년(940)에 청당(淸塘)으로 현 이름(縣名)을 고치고 현종(顯宗) 9년(1018)에 청주(淸州)에 귀속시켰다.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도안현(道安縣) 감무를 겸했다. 조선(朝鮮) 태종(太宗) 5년(1405)에 도안현(道安縣)과 청당현(淸塘縣)의 백성이 적고 땅이 좁아 두 현(兩縣)을 병합하여 청안현(淸安縣)이라 하고, 태종 13년(1413)에 현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各種地理志)에 청안은 읍·면(邑·面)까지만 기록되어 있어 동·리(洞里)를 고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⁵⁾에는 동리는 물론 호구(戶口)와 인구(人口)까지 기록되어 있어 과거의 증평을 살펴 볼 수 있다.

오늘날 증평에 해당하는 청안현의 남면(南面)에는 봉천리(奉天里), 미야리(尾野里), 웅동리(熊洞里), 울치리(栗峙里), 삼기리(三岐里), 대술리(大述里), 장내리(牆內里), 동점리(銅店里), 신대리(新垔里), 어은동리(漁隱洞里), 서원리(書院里), 탄치리(炭峙里), 연정리(淵井里), 산정리(山亭里), 비조리(飛鳥里), 구소리(九素里), 중리(中里), 금성리(金城里), 삼산리(三山里), 매산리(梅山里), 대곡리(大谷里), 양곡리(洋谷里), 금반리(金盤里), 동산리(東山里), 둔덕리(屯德里), 작동리(鵲洞里), 장성리(長城里) 등 27개 동리가 행정구역으로 정해졌다.

서면(西面)은 축암리(蜀巖里), 신대리(新垔里), 정안리(正安里), 만단산리(萬斷山里), 옥산리(玉山里), 반천리(盤泉里), 학암리(鶴巖里), 추동리(楸洞里), 모암리(慕巖里), 삼기리(三岐里), 궐양리(闕陽里), 현곡리(玄谷里), 송암

리(松巖里), 학동리(鶴洞里), 하모애리(下毛涯里), 용담리(龍潭里), 장내리(牆內里), 상모애리(上毛涯里), 인정리(仁政里), 괴정리(槐亭里), 신촌리(新村里), 신평리(新坪里), 송정리(松亭里), 신곡리(新谷里), 건천리(乾川里), 건천중리(乾川中里), 건천하리(乾川下里), 소백암리(小白巖里), 대백암리(大白巖里), 우군리(右軍里), 대구동리(大口洞里), 태평리(太平里), 원당리(元堂里), 용대리(龍垞里), 용전리(龍田里), 구암리(九巖里), 봉학리(奉鶴里), 주정리(酒井里) 등 38개 동리가 행정구역이다.

또한, 근서면(近西面)에는 사청리(射廳里), 방곡리(芳谷里), 남산리(南山里), 내룡리(內龍里), 청룡리(靑龍里), 외룡리(外龍里), 곡강리(曲江里), 모정리(慕亭里), 삼성리(三省里), 내동상리(內洞上里), 내동하리(內洞下里), 증자천리(曾子川里), 도정상리(道井上里), 평사리(平沙里), 선원리(仙院里), 반탄리(磻灘里), 금곡리(金谷里), 연산리(連山里), 연신리(連新里), 연천리(連天里), 사읍사리(沙邑沙里), 송치리(松峙里), 안자산리(顔子山里), 서당리(書堂里), 미륵리(彌勒里), 시화상리(時化上里), 시화하리(時化下里), 단암상리(丹巖上里), 단암하리(丹巖下里) 등 29개 리가 있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따르면 오늘날 증평에 해당하는 청안군(淸安郡) 남면(南面)은 내봉천리(內奉天里), 외봉천리(外奉天里), 울치리(栗峙里), 삼기리(三岐里), 덕평리(德坪里), 장천리(長川里), 동점리(銅店里), 연정리(淵亭里), 원평리(院坪里), 비학리(飛鶴里), 구상리(九祥里), 덕령리(德令里), 중리(中里), 서동(書洞), 금성동리(金盛洞里), 금반리(金盤里), 대수리(大水里), 탑동리(塔洞里), 염곡리(濂谷里), 둔덕리(屯德里), 포천리(浦川里), 작동리(鵲洞里), 장봉리(獐峯里), 탄치리(炭峙里), 정복동리(正福洞里) 등 25개 동리가 있었다.

서면(西面)에는 신성리(新城里), 신평리(新坪里), 신상리(新上里), 신하리(新下里), 석화리(石花里), 장포리(長浦里), 인정리(仁政里), 모애리(毛涯里), 죽계리(竹溪里), 용담리(龍潭里), 가양리(可陽里), 아동리(鵝洞里), 현곡리(玄谷里), 모암리(毛岩里), 삼기리(三岐里), 추동리(楸洞里), 학암리(鶴岩里), 옥산리(玉山里), 만수산리(萬水山里), 부동리(釜洞里), 금곡리(金谷里), 신대리(新垞里), 여상리(呂上里), 여중리(呂中里), 여하리(呂下里), 구정탄리(九政灘里), 소백암리(小白巖里), 대백암리(大白巖里), 진동리(陳洞里), 중우군리(中右軍里), 상우군리(上右軍里), 대구동리(大口洞里), 우산리(牛山里), 칠암리



증평읍 증평리 하수도 공사 광경

(七岩里), 구암리(九岩里), 용대리(龍垓里), 용전리(龍田里) 등 37개 동리가 있었다.

그리고 근서면(近西面)은 사청리(射廳里), 방곡리(芳谷里), 내룡리(內龍里), 외룡리(外龍里), 석현리(石峴里), 곡강리(曲江里), 삼성리(三省里), 내상리(內上里), 안곡리(安谷里), 증천리(曾川里), 선원리(仙院里), 장평리(壯坪里), 상평사리(上平沙里), 하평사리(下平沙里), 미륵리(彌勒里), 단암리(丹岩里), 시화리(時化里), 안자산리(安子山里), 송치리(松峙里), 송오리(松五里), 사곡리(沙谷里), 반탄리(潘灘里), 금곡리(金谷里), 연신리(連新里), 연천리(連川里), 탑선리(塔仙里) 등 26개 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증평읍의 변천 참조〕

또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당시의 호수(戶數)는 남면이 328호(戶)·서면이 552호(戶), 근서면이 444호이며, 인구(人口)는 남면이 남자(男子) 684명, 여자(女子) 774명 등 총 1,458명·서면이 남자(男子) 963명, 여자(女子) 922명 등 총 1,885명·근서면이 남자(男子) 688명, 여자(女子) 625명 등 총 1,313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31년(1894) 6월 22일 개화당(開化黨)이 집권하여 갑오개혁(甲午改革)을 실시, 신분제(身分制)와 과거제(科擧制)를 폐지하고 궁정(宮廷)과 정부(政府)를 분리하는 등 중앙관제(中央官制)를 전면 개혁했다. 중앙관제를 개편한 지 1년 후인 1895년 5월 25일 칙령 제101호를 공포함으로써 지방관제도 개혁이 단행됐다. 이에 따라 태종이래 482년간 계속되어 온 8도제(道制)가 폐지되고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를 채택, 기존의 유수부(留守府)·부(府)·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도호부(都護府)·군(郡)·현(縣)을 23부(府) 337군(郡)으로 개편했다. 이때 부에는 관찰사(觀察使)를, 군에는 군수(郡守)를 두어 지방행정을 총괄했다. 또는 증평지역이 속했던 청안현은 청안군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이후 건양 2년(1897) 8월 4일자(勅令 36호)로 23부 337군을 1수부(首府) 1목 7부 331군으로, 광무(光武) 8년(1905)말까지는 1수부 13도 1목 3부 339군으로 개편됐다. 이때 충청좌도(忠淸左道)가 충청북도로 개칭되어 17개 군을 관할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정이 개편됐지만, 오늘날 증평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14년이다.

19세기 말부터 구한국(舊韓國)을 병탄(併呑)하고자 갖은 야욕을 부린 일제는 헤이그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소위 한일합방(韓日合邦)의 큰 걸림돌인 고종황제를 왕좌에서 몰아낸 일제(日帝)는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대한제국을 일본에 귀속시켰다.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한국을 통치하고자 설치됐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다. 이때에 충청북도는 18개군에서 10개군으로 청안군·괴산군·연풍군은 괴산군으로 통합됐다. 이 과정에서 증평면이 신설됐

고, 증평리(曾坪里)·연탄리(連灘里)·송산리(松山里)·미암리(彌岩里)·사곡리(射谷里)·용강리(龍江里)·덕상리(德祥里)·남차리(南次里)·율리(栗里)·죽리(竹里)·남하리(南下里)등 11개 동리의 행정구역이 개편 됐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도·부·군·도(島)의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6호에 의하여 증평면이 읍(邑)으로 승격됐다⁶⁾. 그리고 1966년 1월 1일 증평읍의 인구 증가에 따라 증평리에서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를 법정리(法定里)로 분리했으며, 증평리(曾坪里)·교동리(校洞里)·중동리(中洞里)·대동리(大洞里)·연탄리(連灘里)·송산리(松山里)·미암리(彌岩里)·사곡리(射谷里)·용강리(龍江里)·덕상리(德祥里)·남차리(南次里)·율리(栗里)·죽리(竹里)·남하리(南下里)등 14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리를 관할했다.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청원군 북이면 초중리(楚中里)가 편입되어 15개 동리가 됐다.

이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으나 증평지역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은 자치단체 설치 전 단계인 충청북도 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가 됐으며, 출장소로 승격되자 증천(曾川)·장평(長坪)지소로 개편됐다. 한편 2002년 1월 2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소의 관할구역을 개편했다. 증천지소는 당초 증평리(曾坪里)·사곡리(射谷里)·용강리(龍江里)·덕상리(德祥里)·남차리(南次里)·율리(栗里)·남하리(南下里)·죽리(竹里)였던 행정구역을 증평리·신동리(新洞里)·창동리(昌洞里)·내성리(內省里)·초중리(楚中里)·연탄리(連灘里)·덕상리·남차리·율리·죽리·남하리로 개편했다.

또한 장평지소는 교동리(校洞里)·중동리(中洞里)·대동리(大洞里)·초중리(楚中里)·연탄리(連灘里)·미암리(彌岩里)·송산리(松山里)의 행정구역을 장동리(莊洞里)·교동리·중동리·대동리·증천리(曾川里)·송산리·미암리·용강리(龍江里)·사곡리(射谷里) 등 9개리를 장평지소가 관할하도록 했다.

1990년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이래 증평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자치단체 설립이 마침내 이루어져 2003년 5월 29일 법률제6902호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3개월 뒤인 2003년 8월 30일 증평군(曾坪郡)이 공식 설치되어 증평군 증평읍이 됐다.

증평읍의 동쪽은 괴산군 청안면(淸安面), 남쪽은 청원군(淸原郡) 미원면(米院面)과 내수읍(內秀邑), 서쪽은 청원군 북이면(北二面), 북쪽은 같은 군 도안면(道安面)과 진천군(鎭川郡) 초평면(草坪面)을 접하고 있다.

6) 金洪基外 編著, 『地方行政組織制度史』, 忠淸北道, 1992년, 294쪽.

● 표 1. 증평면의 변천

현재의 동리명	1914년 동리명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1912년) 洞里名	戶口總數(1789년경) 洞里名
曾坪邑 曾坪里 校洞里 中洞里 大洞里 新洞里 昌洞里 莊洞里 曾川里 內省里 楚中里	曾坪面 曾坪里	淸安郡 近西面 莊坪里, 三省里, 安谷里, 內上里, 平沙里, 曾川里, 일부 淸安郡 南面 金盤里, 屯德里 일부 淸州郡 山外二面 楚中里 일부	淸安縣 近西面, 三省里, 內洞上里·內洞下里, 平沙里, 曾子川里, 道井上里 일부
連灘里	連灘里	淸安郡 近西面 連川里, 連新里, 塔仙里, 金谷里, 潘灘里, 沙谷里 일부 淸州郡 山外二面 琴臺里 일부, 淸州郡 北江內二面 金軒里	淸安縣 近西面 連天里, 連新里, 連山里, 沙邑沙里, 仙院里, 金谷里, 磻灘里 일부
松山里	松山里	淸安郡 近西面 松峙里, 松五里, 安子山里, 彌勒里, 沙谷里 일부 淸州郡 山外二面 楚中里 일부	淸安縣 近西面 松峙里, 顏子山里, 彌勒里, 平沙里 일부
彌岩里	彌岩里	淸安郡 近西面 時化里, 丹岩里, 仙源里, 彌勒里, 上平沙里, 下平沙里 일부 淸安郡 北面 紫陽里, 道安里	淸安縣 近西面 時化上里, 時化下里, 丹巖上里, 丹巖下里, 仙院里, 彌勒里, 平沙里, 書堂里 일부 淸安縣 北面 大自郎里
射谷里	射谷里	淸安郡 近西面 芳谷里, 射廳里, 弓田里, 內龍里, 上平沙里, 下平沙里, 曾川里 일부 淸安郡 邑內面 回龍里 일부	淸安縣 近西面 芳谷里, 射廳里, 南山里, 靑龍里, 內龍里, 平沙里, 曾子川里 일부
龍江里	龍江里	淸安郡 近西面 外龍里, 石峴里, 曲江里, 內龍里, 曾川里 일부 淸安郡 南面 鵲洞里 일부	淸安縣 近西面 外龍里, 石峴里, 曲江里, 靑龍里, 內龍里, 曾子川里 일부
德祥里	德祥里	淸安郡 南面 獐峯里, 正福洞里, 德令里, 九祥里, 淵亭里, 鵲洞里, 炭峙里 일부	淸安縣 南面 九素里, 淵井里, 鵲洞里, 炭峙里 일부
南次里	南次里	淸安郡 南面 銅店里, 德坪里, 長川里, 炭峙里, 淸州郡 山外二面 越境里, 淸油里	淸安縣 南面 銅店里, 牆內里, 炭峙里
栗里	栗里	淸安郡 南面 三岐里, 栗峙里, 外奉天里, 內奉天里 淸州郡 山外二面 淸油里 일부	淸安縣 南面 三岐里, 栗峙里, 奉天里
竹里	竹里	淸安郡 南面 牟坪里, 大水里, 中里, 飛鶴里, 院坪里, 書洞里 일부 淸州郡 山外二面 越境里	淸安縣 南面 大述里, 中里, 飛鳥里, 書院里 일부

현재의 동리명	1914년 동리명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1912년) 洞里名	戶口總數(1789년경) 洞里名
현재의 동리명	1914년 동리명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1912년) 洞里名	戶口總數(1789년경) 洞里名
曾坪邑 曾坪里	曾坪面 曾坪里	淸安郡 近西面 莊坪里, 三省里, 安谷里, 內	淸安縣 近西面, 三省里, 內洞上里 · 內洞

1. 증평리(曾坪里)

증평리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淸安縣) 근서면의 지역이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 청안현 근서면에 29개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증평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삼성리(三省里), 내동상리(內洞上里), 내동하리(內洞下里), 평사리(平沙里), 증자천리(曾子川里) 등 5개리가 있었다. 그 뒤 증평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근서면(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근서면은 26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내동상리(內洞上里)와 내동하리(內洞下里)는 내상리(內上里)로 합쳐졌으며, 증자천리(曾子川里)는 증천리(曾川里)로 바뀌었고, 장평리(莊坪里), 안합리(安合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주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근서면의 장평리(壯坪里), 삼성리(三省里), 안합리(安合里), 내상리(內上里), 평사리(坪沙里), 증천리(曾川里) 일부와 청안군(淸安郡) 남면(南面)의 금반리(金盤里), 둔덕리(屯德里)의 각 일부와 청주군(淸州郡) 산외이면(山外二面)의 초중리(楚中里) 일부를 병합하여 증천리와 장평리의 이름을 따서 증평리라 하여 괴산군 증평면에 편입됐다.

광복 이후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6호에 의하여 증평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가 됐다.

증평리는 1966년 1월 1일 교동리, 중동리, 대동리로 분리됐고, 다시 2002년 1월 2일 창동리, 장동리, 증천리, 내성리, 신동리로 분리(법정리)되고 대동 5개리 중 대동 2,3,4리를 증평리로 했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증평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 관할이었다.



증평읍 증평리

그리고 2003년 5월 29일 법률제6902호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3개월 뒤인 2003년 8월 30일 증평군(曾坪郡)이 공식 설치되어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가 됐다.

1) 비렁이들

증평 서쪽에 있는 들이다. 물이 귀해서 땅이 몹시 척박하다.

2) 영명사(永明寺)

증평리에 있는 절이다.

3) 단군전(檀君殿)



증평읍 증평리 단군전

국조 단군을 모시고 있는 사당(祠堂)이다. 단군전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경천승조 사상(敬天崇祖思想)을 길러 민족정기를 빛내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당초 단군전 자리에는 일본제국주의가 1929년에 만든 일본 신사(神祠)가 있었다. 이 신사는 광복 이튿날인 1945년 8월 16일 증평지역 청년들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그 후 1948년 5월 27일 김기석(金箕錫 : 1897~1978)씨 등 증평지역의 유지들이 그 자리에 단군전을 건립한 것이다.

2. 장동리(莊坪, 장들)⁷⁾

장동리는 증평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이전에는 나무꾼들에 의해 장(場)이 서던 곳이다.⁸⁾ 장동리는 조선시대 청안현 근서면에 속했다.

조선 정조(正祖)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 청안현 근서면에 29개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장동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삼성리(三省里), 내동상리(內洞上里), 내동하리(內洞下里), 평사리(平沙里), 증자천리(曾子川里) 등 5개리가 있었다. 그 뒤 장동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 청안군의 6개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근서면(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7) 괴산군지에 따르면 옛날 나무꾼 청년 둘이 장치기 하던 벌판에서 장들이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동(莊洞)이라는 마을 이름은 중국의 장자(莊子)를 상징하는 뜻으로 장동이라 이름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괴산군지편찬위원회, 『괴산군지』, 1990년, 338쪽

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충북편)』, 1970년, 61쪽.
忠淸北道, 『地名誌』, 1987년, 624쪽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 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근서면은 26 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내동상리(內洞上里)와 내동하리(內洞下里)는 내상리(內上里)로 합쳐졌으며, 증자천리(曾子川里)는 증천리(曾川里)로 바뀌었고, 장평리(壯坪里), 안합리(安合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측량하여 1916년 일본 육지 측량부(陸地測量部)가 제작한 지도를



증평읍 장동리 전경

살펴보면 장평(莊坪)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1970년 한글학회 『지명총람(충청북도편)』과 1987년 충청북도(忠淸北道) 『지명지(地名誌)』 자료에 의하면 장뜰(莊坪)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의 유래에 대하여 『지명총람(충청북도편)』, 『지명지』는 시장이 섰던 곳이라 설명하고 있다. 한편, 1990년 괴산군이 간행한 『괴산군지』를 보면 예전에 장치기를 하던 곳에서 유래했다고 기록 돼 있다.

장동리 또는 장뜰은 이 지역의 들판이 넓었기 때문에 유래된 것으로 본다. 즉, 넓다는 의미의 장(張, 長)과 들판의 들이 합쳐져 장들 또는 장뜰이 1914년 일본제국주의가 지명을 정리하면서 장평(莊坪)으로 고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 시장(市場)이 들어선 것은 1923년 5월 1일 충북선 열차가 개통된 이후이다. 또한 장치기는 당시 모든 동리에서 즐기던 민속놀이로, 유독 이 지역만 장치기를 해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장동리는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의 행정마을에서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 106조, 충청북도 조례 제1864호』에 의해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라 증천지소 관할에서 2002년 1월 2일 증평리에서 법정리로 분리되어 장평지소 관할로 있다가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로 증평읍에 속해 있다.

3. 교동리(校洞里)⁹⁾

교동리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면 근서면의 지역으로 장평(莊坪)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1966년 1월 1일 증평리에서 분동되어 법정리로 됐다.

교동리는 괴산군 증평읍 속해 있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06조, 충청북도조례 제 1864호』에 의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라 장평지소 관할에서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로 증평읍에 속해 있다. 교동리라

9) 교동리라는 지명은 조선시대 향교(鄕校)에서 유래한다. 즉 향교가 있는 마을을 교동리 또는 향교내 주 건물인 대성전(大成殿)을 따서 대성리(동)라고 한다.



중평읍 교동 사거리

는 이름은 향토사적을 볼때 통상적으로 조선시대 향교가 있었던 마을 이름으로 불리어 왔는데 중평읍 교동리는 1930년 4월 19일 중평공립보통학교가 설립 되면서 불리어졌다. (전 중평읍장 봉원동 증언 : 2004.12)

4. 중동리(中洞里)

중동리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면 근서면의 지역으로 교동리(校洞里)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1966년 1월 1일 중평리에서 분동되어 법정리로 됐다.

중동리는 괴산군 중평읍 속해 있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 106조, 충청북도 조례 제1864호』에 의해 충청북도중평출장소 설치에 따라 장평지소 관할에서 2003년 8월 30일 중평군 설치로 중평읍에 속해 있다.

중동이라는 이름은 중평리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중앙마을의 뜻으로 중동리라고 불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 중평장(曾坪場)



중평읍 장평 시장

중동리에 5일마다 서는 전통적인 재래시장이다. 1923년 조치원 ↔ 중평(당시 청안역)간 충북선이 개통됨으로 인근 괴산군 일원, 청원군 일부, 진천군 일부지역의 쌀, 콩, 연초, 누에고치, 면화 등 주요 농산물들이 대도시인 인천, 군산, 서울, 부산 등으로 직송됨에 따라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유동인구가 증가되어 장(場)은 급격히 발달했으며, 1928년 중평(청안) ↔ 충주간의 충북선이 연장 개통됨으로 중평장은 더욱 활성화 됐다. 오늘에 도로의

발달과 차량의 다양화, 대형 마트에 의한 상거래 양상의 변화에도 중평5일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04년 중평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상인과 사용자의 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일과 6일에 장이 선다.

5. 대동리(大洞里)

대동리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 근서면의 지역으로 증동리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1966년 1월 1일 증평리에서 분동되어 법정리로 됐다.

대동리는 괴산군 증평읍 속해 있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 106조, 충청북도 조례 제1864호』에 의해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라 장평지소 관할에서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로 증평읍에 속해 있다.

대동리라는 이름은 증평리에서 자연마을로는 가장 큰 마을이어서 대동리로 지명이 불리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증평리에서 분동시 대동 2·3·4리는 증평리에 남고 대동 1리만 법정리로 분동되어 현재로는 큰 마을이 아니고 증동리와 증평리 사이에 가장 작은 마을이 됐다.

6. 신동리(新洞, 새터말)

신동리는 증동리 남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로 본래 조선시대 청안면 근서면의 지역이다. 향토사적으로 보면 신동리라는 마을 이름은 새터말에서 유래 한다. 새터 또는 새터말은 새로 생긴 마을을 일컬어 부르는 말로 지명이 한자화(漢字化)되면서 신동(新洞) 또는 신기(新基)라고 불리어 졌다. 증평읍의 새터말은 한자화 되면서 신동리라는 행정마을로 불리어 졌다.

신동리는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의 행정마을로 있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 106조, 충청북도 조례 제1864호』에 의해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라 증평지소 관할에서 2002년 1월 2일 증평리에서 분동되어 법정리로 되고,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로 증평읍에 속해 있다.



증평읍 신동리

7. 창동리(昌洞, 店村)

창동리는 증동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1923년 5월 1일 충북선 개통으로 증평역(청안역)이 위치하고 있어 물류유통을 위한 농산물, 옹기점, 창고(倉庫)등



증평읍 창동리 노인회관

의 보관건물이 있었던 것에서 창동리로 불리어 졌다. (2004. 12. 전 증평읍장 봉현동 증언)

창동리는 괴산군 증평읍 중동리의 행정마을로 속해 있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06조, 충청북도 조례 제1864호』에 의해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라 장평지소 중동리에 속한 행정마을에서 2002년 1월 2일 중동리에서 분동되어 법정리로 되고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로 증평읍에 속해 있다.

8. 증천리(曾川里, 진지내)

증천리는 조선시대 청안현 근서면에 속했던 마을로 증평의 ‘증’ 자를 따올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용강리와 경계를 이루며 그 사이로 삼기천이 흐른다.

현재의 증천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증자천리(曾子川里)가 있었다. 증자천¹⁰⁾ 옆(또는 앞)에 있는 동리라 하여 증자천리로 불리운 것 같다. 이 증자천리가 증천리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명 진지내라고도 한다. 그 뒤 증천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근서면(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0) 영조때에 만든 『여지도서(輿地圖書)』 청안현 지도를 살펴보면 삼보산(三寶山) 밑에 증자천(曾子川)이 그려져 있다. 증자천은 지금의 삼기천(三岐川)이다. 증평의 원 지명 중 증천(曾川)은 이 증자천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國史編纂委員會 影印, 『輿地圖書』, 1973년, 1112쪽.



증평읍 증천리 전경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근서면의 장평리(莊坪里), 삼성리(三省里), 안합리(安合里), 내상리(內上里), 평사리(坪沙里), 증천리(曾川里) 일부와 청안군(淸安郡) 남면(南面)의 금반리(金盤里), 둔덕리(屯德里)의 각 일부와 청주군(淸州郡) 산외이면(山外二面)의 초중리(楚中里) 일부를 병합하여 증천과 장평의 이름을 따서 증평리라 하여 괴산군(槐山郡) 증평면(曾坪面)에 편입됐다.

증천리는 광복 이후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6호에 의하여 증평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었을 때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에 속했다.

증천리는 1966년 1월 1일 증평리가 증평리·교동리·중동리·대동리로 분동(分洞)될 때 중동리에 속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06조, 충청북도 조례 제1864호』에 의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에 따라 장평지소 중동리에 속한 행정마을에서 2002년 1월 2일 중동리에서 분동되어 법정리로 되고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로 증평읍에 속해 있다.

9. 내성리(內洞, 內省洞, 안골)

내성리는 장평리(장뜰, 莊坪里) 안쪽(남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안골이라고 하는데,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 근서면(近西面)에 속한 지역이다. 조선 정조(正祖)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 청안현 근서면에 29개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내성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삼성리(三省里), 내동상리(內洞上里), 내동하리(內洞下里) 등 3개리가 있었다. 그 뒤 내성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근서면(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근서면은 26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내동상리(內洞上里)와 내동하리(內洞下里)는 내상리(內上里)로 합쳐졌다. 1914년 측량하여 1916년 일본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에서 제작한 지도에 내동(內洞)과 성리(省里)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증평리 내에서도 오래된 마을로 볼 수 있다. 내성리는 내동(안골)과 성리(삼성당)의 이름을 따서 내성리라고 한



내성동 마을회관

것으로 추정된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근서면의 장평리(莊坪里), 삼성리(三省里), 안합리(安合里), 내상리(內上里), 평사리(坪沙里), 증천리(曾川里) 일부와 청안군(淸安郡) 남면(南面)의 금반리(金盤里), 둔덕리(屯德里)의 각 일부와 청주군(淸州郡) 산외이면(山外二面)의 초중리(楚中里) 일부를 병합하여 증천과 장평의 이름을 따서 증평리라 하여 괴산군(槐山郡) 증평면(曾坪面)에 편입됐다.

내성리는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 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때 증천지소 증평리에 속했고, 2002년 1월 2일 증평리에서 분동되어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로 증평읍에 속해 있다.

1) 삼성당(三聖堂)

안골(內省洞, 內洞) 동쪽에 있는 마을로 삼신당(三神堂, 三聖堂)이 있었다고 하여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초중리(楚中里)

본래 초중리(楚中里)는 조선시대 때 청주목(淸州牧) 산외이면(山外二面) 지역에 속해 있었으며,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주군(淸州郡) 산외이면이 됐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초중리에 같은



증평읍 초중리 전경

면(面)의 장촌리(牆村里), 금대리(琴臺里), 외장리(外牆里), 송정리(松亭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초중리라 했다. 광복 이후 초중리는 청원군 북이면(北二面)에 속했다가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괴산군 증평읍에 편입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초중리는 장평지소(莊坪支所)에 속하게 됐다. 2002년 1월 2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소의 관할 구역을 변경할 때, 초중리는 장평지소에서 증천지소(曾川支所)로 바뀌었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초중리가 됐다.

초중리는 영조 연간에 발간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청주목(淸州牧) 산외이면(山外二面)에 기록된 초성리(楚城里)가 초중리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 초성은 가시나무고개 또는 매고개로 해석이 된다. 아마도 잡목이 우거진 고개라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된 것 같다.

1) 가장골

신초중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장골은 가좌골이라고도 부른다. 가좌라는 말은 그 지역의 가장자리(邊)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을 지칭하며, ‘가쟁골’은 이웃 동네나 이웃 고을과의 경계지점, 즉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마을을 가리킨다.¹²⁾ 실제로 초중리의 경우 대한제국시대 이전에 청주목과 청안현의 경계에 해당하며, 청주 땅에서 보면 북쪽 가장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장골이라는 마을 이름은 가좌골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정안(定安)

신초중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증안이라고도 불리운다.

3) 신초중(新楚中)

초중리 북쪽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1973년 이전까지는 청원군 지역이었다.

4) 증안뜰

장뜰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뜰이다.

11)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마을이 나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여지도서』 청주목 산외이면 비흥리(飛鴻里)의 경우 비상리(飛上里)와 비중리(飛中里)로 나뉘었다. 초중리(楚中里)도 초성리(楚城里)가 나누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2) 지명유래집편찬위원회, 『地名由來集』, 건설부국립지리원, 1987년, 82쪽

11. 연탄리(連灘里)



증평읍 연탄리 이정표

연탄리(連灘里)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淸安縣) 근서면(近西面)지역에 속해 있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기록에 충청도 청안현 근서면에 29개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연탄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연천리(連天里), 연신리(連新里), 연산리(連山里), 사읍사리(沙邑沙里), 선원리(仙院里), 금곡리(金谷里), 반탄리(礮灘里) 등 7개 리가 있었다. 그 뒤 연탄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근서면(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근서면은 26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연신리(連新里)와 연산리(連山里) 및 연천리(連天里)는 연신리(連新里)·연천리(連川里)로 합쳐졌으며, 반탄리(礮灘里)는 반탄리(潘灘里)로 변경됐다. 또한 선원리(仙院里)와 사읍사리(沙邑沙里)가 없어지고 탑선리(塔仙里)와 사곡리(沙谷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근서면 연천리(連川里), 연신리(連新里), 탑선리(塔仙里), 금곡리(金谷里), 반탄리(潘灘里), 사곡리(沙谷里) 일부, 청주군 산외이면(山外二面)의 금대리(金대里) 일부와 같은 청주군 북강내이면(北江內二面)의 금현리(金軒里)를 병합하여 연신과 반탄의 이름을 따서 연탄리(連灘里)라 하였고, 괴산군 증평면에 편입됐다.

광복 이후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6호에 의하여 증평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괴산군(槐山郡) 증평읍 연탄리가 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연탄리는 장평지소(莊坪支所)에 편입됐다가, 2002년 1월 2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 연탄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



증평읍 반탄교

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연탄리가 됐다.

연탄리는 왕기봉(王起峰), 국사봉의 기슭아래 37사단을 중심으로 증평의 반탄교(요단강)를 지나 생거진천(生居鎭川) 초평으로 넘나들던 길이다. 고갯마루에는 성황당이 있었으며, 성황당 아래쪽 골짜기에는 도적들의 소굴이 있어 한 둘이 지나다니는 것을 꾀했다고 한다. 그리고 연탄리와 진천군(鎭川郡) 초평면(草坪面) 은암리 사이에는 장군대좌(將軍大坐)터, 천석발복(千石發福)터 등의 풍수설에 의한 길지들이 있어 지사(地師)들이 산을 답사하고 다니기도 했던 마을과 산천들이다.

1) 반탄(礮灘, 반월)

보강천 건너 벌말 사이에 있는 마을을 반탄리 또는 반여울이라고 한다. 오래 전에 장이 섰던 곳으로 주막집이 많았다고 한다.

2) 연신(連新, 坪村, 벌말)

연탄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연천리 밖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해서 연신리라 하며 한편으로는 평평하고 넓은 들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벌말이라 한다.

3) 금곡(金谷, 金岩, 粉土골)

벌말 동남쪽 산 밑에 있는 마을로 분토(粉土)가 나며, 이전에 금이 났다고 한다. 땅의 형세가 반응농주형(盤龍弄珠形 :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한 용이 구슬을 갖고 희롱하며 노는 형)이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등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 보이는 곡은곡소(谷銀谷所)의 터로 추정된다. 이 마을 뒤쪽에 청석(靑石)을 캐던 유적이 남아 있다.



연탄리 벌말 · 금곡마을 이정표

4) 금현(金軒, 쇠마루, 새터)

초평면 용기리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벌말 서편에 위치한다. 전설에 의하면 부잣집 마루에 쇠를 깎 집이 있어 쇠마루라고 하고 한자로 표기하면서 금현으로 됐다.



연탄리 금현마을 이정표

5) 연천(連川)

벌말 북쪽에 있는 마을로 물이 끊임없이 줄기차게 흐르는 시내가 앞에 있다고 한다.



증평읍 송산리 전경

6) 탑선(塔仙, 塔仙이)

벌말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진천군 초평면과 경계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마을 끝자락에 있는 3층 돌탑이 신선이 쌓은 탑이라고 해서 탑선이라고 했다는 유래가 있다.

12. 송산리(松山里)

송산리(松山里)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淸安縣) 근서면(近西面) 지역에 속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 청안현 근서면에 29개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송산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송치리(松峙里), 안자산리(顔子山里), 미륵리(彌勒里), 평사리(平沙里) 등 4개리가 있었다. 그 뒤 송산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근서면(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근서면은 26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송치리(松峙里)가 송치리와 송오리(松五里)로 나누어졌으며, 안자산리(顔子山里)는 안자산리(安子山里)로 변경되었다. 또한 평사리(平沙里)가 없어지고 사곡리(沙谷里)가 새로 생겨났다.

1914년 일본제국주주의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송치리(松峙里), 송오리

(松五里), 안자산리(安子山里)와 미륵리(彌勒里), 사곡리(沙谷里)의 각 일부와 청주군(淸州郡) 산외이면(山外二面)의 초중리(楚中里) 일부를 병합하여 송치와 안자산의 이름을 따서 송산리라 하여 괴산군 증평면(淸)에 편입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송산리는 장평지소(莊坪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송산리가 됐다.

1) 사곡(沙谷, 삼사리를 1789년 호구총수 沙邑沙里로 기록)

솔고개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두타산(頭陀山) 밑이 되는데, 모래가 많아 사곡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2) 송티(松峙, 솔고개)

송산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솔고개 밑에 위치한다.

3) 송오리(松五里)

안자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솔고개에서 거리가 약 5리 정도 되어 송오리라고 불리웠다

4) 안자괴(안자미, 안자산, 顔子山里)

솔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자산 밑에 위치하여 안자괴라고 불린다.



송산리 송티·안자산·송오리 삼사리마을 이정표

13. 미암리(彌岩里)

미암리(彌岩里)는 본래 조선시대 때 청안현(淸安縣) 근서면(近西面) 지역에 속했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기록에는 충청도(忠淸道) 청안현(淸安縣) 근서면(近西面)에 29개의 동리(洞里)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미암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시화상리(時化上里), 시화하리(時化下里), 단암상리(丹巖上里), 단암하리(丹巖下里), 선원리(仙院里), 미륵리(彌勒里), 평사리(平沙里), 서당리(書堂里)와 북면(北面)의 대자랑리(大自郎里) 등 9개리가 있었다. 그 뒤 미암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근서면

증평읍 미암리 전경



(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근서면은 26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평사리(平沙里)가 상평사리(上平沙里)와 하평사리(下平沙里)로 나누어졌고, 시화상리(時化上里)와 시화하리(時化下里)가 시화리(時化里)로, 단암상리(丹巖上里)와 단암하리(丹巖下里)가 단암리(丹岩里)로 합쳐졌다. 또한 선원리(仙院里)는 선원리(仙源里)로, 대자랑리(大自郎里)는 자양리(紫陽里)로 변경됐으며, 서당리(書堂里)가 없어지고 도안리(道安里)가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시화리(時化里), 단암리(丹岩里), 선원리(仙源里)와 미륵리(彌勒里), 평사리(平沙里), 명암리(鳴岩里)의 각 일부 및 같은 군 북면(北面)의 자양리(紫陽里), 도안리(道安里)를 병합하여 미륵과 단암의 이름을 따서 미암리라 하여 괴산군 증평면(읍)에 편입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會坪出張所)로 바뀔 때 미암리는 장평지소(莊坪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미암리가 됐다.



단지바우 이정표

1) 단암(丹岩, 단지바위, 단지배)

미륵댕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단지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2) 大紫陽(대지랭이)

미륵댕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이 깊어서 대지랭이

로 불리웠다고 한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대자랑리(大自郎里)로 기록되어 있다.

3) 미륵대이(彌勒대이)

미륵이 있다해서 미륵대이라는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4) 시화(時化, 수예)

단지바위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시화역(時化驛)이라는 역이 있었던 동네여서 이 역(驛)의 이름에서 마을이름이 유래했다.

역원제도(驛院制度)는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및 변방(邊方)의 중요한 군사 정보, 그리고 사신(使臣)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교통 통신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설치된 제도다.



미륵대이 이정표



시화마을 이정표

5) 하평(下坪, 음بار리)

재평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기록되어 있는 하평사리(下平沙里)로 추정된다.

6) 상평(上坪, 재평골)

미륵대이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기록되어 있는 상평사리(上平沙里)로 추정된다.

14. 사곡리(射谷里)

사곡리(射谷里)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淸安縣) 근서면(近西面) 지역에 속했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忠淸道) 청안현(淸安縣) 근서면(近西面)에 29개의 동리(洞里)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사곡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방곡리(芳谷里), 사청리(射廳里), 남산리(南山里), 청룡리(靑龍里), 내룡리(內龍里), 평사리(平沙里), 증자천리(曾子川里) 등 7개리가 있었다. 그 뒤 사곡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



증평읍 사곡리 전경

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근서면(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근서면은 26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평사리(平沙里)가 상평사리(上平沙里)와 하평사리(下平沙里)로 나누어졌고, 증자천리(曾子川里)가 증천리(曾川里)로 변경됐다. 또한 남산리(南山里)와 청룡리(靑龍里)가 없어지고 궁전리(弓田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방곡리(芳谷里), 사청리(射廳里), 궁전리(弓田里)와 내룡리(內龍里), 평사리(平沙里), 증천리(曾川里), 명암리(鳴岩里)의 각 일부와 읍내면(邑內面)의 회룡리(回龍里) 일부를 병합하여 사청과 방곡의 이름을 따서 사곡리라 하여 괴산군 증평면(邑)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곡리 이정표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사곡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에 편입됐다. 2002년 1월 2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면서 사곡리는 장평지소(莊坪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사곡리가 됐다.

1) 사청(射廳, 사청이)

궁전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활을 쏘는 사정(射亭)이 있었다고 한다.

2) 방곡(芳谷)

궁전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방곡 이정표

3) 신촌(新村, 방아다리)

사청 남쪽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지형이 방아다리처럼 생겨 방아다리라고도 불리운다.

4) 궁전리(弓田里)

사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들 가운데가 마을이 위치한다. 마을의 생김이 활같이 둥글고 둥근 활 앞에 밭이 많다 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5) 외궁(外弓)

궁전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6) 내궁(內弓, 질벌, 泥坪)

궁전 안쪽에 있는 마을로 땅이 몹시 질어서 질벌 또는 이평(泥坪)이라고도 불리운다. 여기서 말하는 질벌은 땅이 질어서가 아니라 들판이 넓다(長)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긴 벌판을 의미하는 긴벌이 질벌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용강리(龍江里)

용강리(龍江里)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淸安縣) 근서면(近西面) 지역에 속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忠淸道) 청안현(淸安縣) 근서면(近西面)에 29개의 동리(洞里)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용강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외룡리(外龍里), 석현리(石峴里), 곡강리(曲江里), 청룡리(靑龍里), 내룡리(內龍里), 증자천리(曾子川里) 등 6개리가 있었다. 그 뒤 용강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근서면(近西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증평읍 용강리 전경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근서면은 26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증자천리(曾子川里)가 증천리(曾川里)로 변경되었으며, 청룡리(靑龍里)가 없어졌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외룡리(外龍里), 석현리(石峴里), 곡강리(曲江里), 내룡리(內龍里) 일부, 증천리(曾川里) 일부와 남면(南面)의 작동리(鵲洞里)일부를 병합하여 용문리와 곡강리의 이름을 따서 용강리라 하여 괴산군 증평면(邑)에 편입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용강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에 편입되었다. 2002년 1월 2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소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 용강리는 장평지소(莊坪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용강리가 됐다.

1) 곡강(曲江, 곡강골)

돌고개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형태가 굽이쳐서 흐르는 강(河回)과 비슷하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2) 석현(石峴, 돌고개)

용문리에서 청안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돌고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3) 외룡리(外龍里, 바깥용문이)

용문이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4) 내용문(內龍門, 안용문이)

용문이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5) 용문(龍門, 원용문이)

용강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이다. 지형이 용문처럼 생겼다고 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바깥용문이와 안용문이로 나뉘어져 있다.



용강리 곡강골 이정표



용강4리 돌고개마을 이정표



용강3리 용문마을 이정표

16. 덕상리(德祥里)

덕상리(德祥里)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 지역이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忠淸道)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에 27개의 동리(洞里)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덕상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구소리(九素里), 연정리(淵井里), 작동리(鵲洞里), 탄치리(炭峙里) 등 4개리가 있었다. 그



중평읍 덕상리 전경

뒤 덕상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남면(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남면은 25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연정리(淵井里)가 연정리(淵亭里)로 변경되었으며, 구소리(九素里)가 없어지고, 구상리(九祥里), 덕령리(德令里), 정복동리(正福洞里), 장봉리(獐峯里)가 새로 생겼다.



덕상3리 회관

1914년 일본제국주주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장봉리(獐峯里), 정복동리(正福洞里), 덕령리(德令里), 구상리(九祥里), 연정리(淵亭里), 작동리(鵲洞里), 탄치리(炭峙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덕령과 구상의 이름을 따서 덕상리라 하여 괴산군 중평면(邑)에 편입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중평읍에서 충청북도중평출장소(忠淸北道會坪出張所)로 바뀔 때 덕상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중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중평군이 설치되어 중평읍 덕상리가 됐다.

1) 구상리(九祥里, 구역말)

덕령 남쪽에 있는 마을로 상서(祥瑞)로움이 많은 살기 좋은 마을이다.



덕상1리, 연정마을 이정표

2) 작동(鵲洞, 까치말)

노루봉골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까치가 많이 서식했다하여 마을 이름이 까치말로 붙여졌다.

3) 장봉(獐峯, 노루봉골)

까치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의 형국이 노루의 머리 처럼 되어 있어 노루봉골로 불리운다.

4) 연정(淵亭, 뚝저리)

구억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큰 못과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5) 양촌(陽村, 양지말)

덕상리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6) 정복동(正福洞)

뚝저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7) 덕령(德令)

노루봉골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용의 혜택을 받은 동네라서 덕용으로 부르다 덕령으로 와전 되었다고 한다.¹³⁾

13) 忠淸北道, 『地名誌』,
1987년, 627쪽

17. 남차리(南次里)



증평읍 남차리 전경

남차리(南次里)는 본래 조선시대 때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 지역에 속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忠淸道)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에 27개의 동리(洞里)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남차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동점리(銅店里), 장내리(牆內里), 탄치리(炭峙里) 등 3개리가 있었다. 그 뒤 남차리는 건양(建陽) 원

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남면(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남면은 25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장내리(牆內里)가 장천리(長川里)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덕坪리(德坪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주의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점리(銅店里), 덕坪리(德坪里), 장천리(長川里), 탄치리(炭峙里) 일부와 청주군(淸州郡) 산외이면(山外二面)의 월경리(越境里), 청유리(淸油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남차리라 해서 괴산군 증평면(邑)에 편입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남차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남차리가 됐다.

1) 강터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2) 새터(銅店, 통기미)

숫고개 북쪽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옛날에 낚그릇점이 있었다고 한다.

3) 숫고개(炭峙, 壽峴)

숫고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숫고개 동북쪽에서 봉천리로 가는 고개다. 옛날에 이 마을에서 숫을 구웠다 해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4) 언덕장내(별장내, 長川)

새터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삼기천(三岐川)가에 마을이 위치한다.



남차2리 · 새터 · 강터마을
이정표



남차3리 장내마을 이정표

18. 율리(栗里)



증평읍 율리 전경

율리(栗里)는 본래 조선시대때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 지역에 속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忠淸道)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에 27개의 동리(洞里)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율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삼기리(三岐里), 율치리(栗峙里), 봉천리(奉天里) 등 3개리가 있었다. 그 뒤 율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

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남면(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남면은 25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봉천리(奉天里)가 외봉천리(外奉天里)와 내봉천리(內奉天里)로 나뉘어졌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삼기리(三岐里), 율치리(栗峙里), 외봉천리(外奉天里), 내봉천리(內奉天里)와 청주군 산외이면(山外二面)의 청유리(淸油里) 일부를 병합하여 율치와 삼기리의 이름을 따서 율리라 하여 괴산군 증평면(읍)에 편입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율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율리가 됐다.

1) 외봉천(外奉天, 바깥봉천이)

봉천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2) 내봉천(內奉天, 안봉천이)

봉천이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봉천리 마을 전경

3) 부점촌(釜店村, 술점말)

바깥 봉천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술을 만드는 점(店)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4) 울치(栗峙, 밤티, 밤티골)

밤고개 밑에 있다해서 밤티라는 마을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지금(1987년 기준)으로부터 약 360여 전에 김치(金緻, 임진왜란때 순국한 진주목사 김시민의 양아들, 경상감사였으며, 인조반정때의 공신)의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이룬 마을로 이 고장의 골짜기마다 특징이 있는 이름이 있다. 예를 들면 향교골, 사장터, 빙고재 독, 가마골, 절골, 담안, 부점 등이 그것이다.

5) 삼기리(三岐里, 栗里三巨里)

밤티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미원, 청천, 증평으로 가는 세 갈래길이 있어서 삼기리 또는 삼거리라고 불렸다.

6) 봉천리(奉川里)

밤티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봉씨가 처음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기 시작해서 봉천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봉천리(奉天里)는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 임금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다음 해인, 세조 2년(1456)에 일어난 사육신들의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하음 봉씨(河陰奉氏)들이 이곳으로 피난 와 살면서부터 붙여진 마을 이름이다.

사옹원별좌(司饔院別座)로 있던 봉여해(奉汝諧)는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端宗) 임금을 폐위시킨 후, 세조 2년(1456)에 성삼문·박팽년·유응부 등 사육신들이 일으킨 단종 복위가 실패하자 세조 임금을 살해하기 위해 칼을 차고 어전(御殿)으로 가던 중 의금부(義禁府)에 붙잡혀 죽게 됐다. 그 후유증으로 봉여해의 친족들이 참화(慘禍)를 면하기 위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봉씨의 일부가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됐다고 한다. 봉씨들이 앞산의 올라 고향인 강화도(江華島)를 쳐다보며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양에서 봉씨들의 일족을 멸살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리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울리 점촌마을 이정표



울리 밤티마을 이정표



울리 삼기마을 이정표

19. 죽리(竹里)

죽리(竹里)는 본래 조선시대때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 지역에 속해 있었다. 남하리와 남차리 중간에 있으므로 중리(中里) 또는 대나무가 많다하여 죽리(竹里)라 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忠淸道)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에 27개의 동리(洞里)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죽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대술리(大述里), 중리(中里), 비조리(飛鳥里), 서원리(書院里) 등 4개리가 있었다. 그 뒤 죽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남면(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당시 청안군 남면은 25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대술리(大述里)가 대수리(大水里)로, 비조리(飛鳥里)가 비학리(飛鶴里)로, 서원리(書院里)가 서동리(書洞里)로 바뀌었다. 또한 모평리(牟坪里)와 원평리(院坪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모평리(牟坪里), 대수리(大水里), 중리(中里), 비학리(飛鶴里), 원평리(院坪里), 서동리(書洞里) 일부와 청주군 산외이면(山外二面)의 월경리(越境里) 일부를 병합하여 죽리라 해서 괴산군 증평면(邑)에 편입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죽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에 편입됐다.



증평읍 죽리 전경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중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중평군이 설치되어 중평읍 죽리가 됐다.

1) 비학리(飛鶴里)

비학리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학이 날아갔다는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정조 13년(1789) 무렵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戶口總數)』 청안현 남면에 비조리(飛鳥里)라는 동리가 있는데 이곳이 비학리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조리나 비학리 모두 새(학)가 날아갔다는 말로, 예전에 이곳이 학의 서식지여서 마을 이름이 유래된 듯하다.¹⁴⁾ 1914년 일본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가 측량하여 1916년 제작한 지도를 살펴보면 비학리는 죽리(竹里)마을내에 속한 자연마을로 표기되어 있다. 비학리는 현재 없어진 마을이다. 다만 삼보산 줄기에 비학골이라는 이름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비학골은 현재 원평리 죽리 식품과 돼지사육장 북쪽 골짜기를 말한다.

14) 현재 비학리 남쪽 덕령마을에 학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2) 사거리(四巨里, 竹里四巨里)

중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동네에서 중평(북쪽), 율리(남쪽), 청안(동쪽), 초중리(서쪽)로 가는 네 갈래 길이 있어서 마을 이름을 사거리 또는 죽리 사거리라고 불리운다.

3) 원평(院坪)

중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이곳에 위치한 포원(蒲院)으로 인하여 원평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원(院)¹⁵⁾은 고려·조선시대에 지방으로 출장한 관원들을 위해 각 요로(要路)와 인가가 드문 곳에 둔 나라가 운영하던 숙식시설이다. 이 원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배속했는데, 이것이 원평(院坪)이다. 중종(中宗) 25년(1530)에 완성된 조선 전기 대표적인 관찬지리서(官撰地理書)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청주목(淸州牧) 역원(驛院)조(條)에 포원(蒲院)이 기록되어 있다.¹⁶⁾ 포원은 청주목에서 북쪽으로 17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통폐합 할 때 청주군 산외이면(山外二面)의 월경리(越境里) 일부를 병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월경리에 현재의 원평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포원은 17세기 전반에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략 인조(仁祖) 10년(1632) 전후해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는 『호서승람(湖西勝覽)』 청주목(淸州牧) 역원(驛院)조(條)에 포원이 이 때에 폐지된 것으로 기록¹⁷⁾되어 있어 17세기 전반에

15) 원(院)이란 공용 여행자와 일반 상려(商旅)를 위한 숙식 제공처로 반민반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이 제도적으로 발전된 시기는 조선 초기이며, 16세기 말부터 점차 황폐화되어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소멸되고 전국에 100여개만 남아 있었으며, 그 성격도 주점(驛)으로 바뀌었다.

16) 金顯吉 編著, 『忠淸北道輿地集成』, 忠北郷土史研究協議會, 1994년 69쪽



죽리 원평마을 이정표

18) 포원 터 인근 산 등성이
에 풍천임씨 묘역이 있
다. 임응신(任應臣, 군자
감), 임협(任鉉, 현감), 임
성지(任性之, 선호당)의
3대 묘로, 이 중 가장 늦
게 조성된 임성지의 묘비
에 따르면 順治 11년
(1654) 5월에 이 묘역이
조성되었다. 묘역은 원래
청안 도근리 빈상곡(貧喪
谷) 옥녀산발형(玉女散
髮形) 대지에 모셨다가
비너바위를 깬 후 현손인
임철(任徹, 청안 현감)과
그 자손들이 현재의 장소
로 이장한 것이다. 이 묘
역이 조성될 당시는 이미
원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
로 추정된다. 만약 이 때
에도 원의 기능이 있었다
면 바로 옆에 묘역을 조
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 마을 노인들은 감나무골
이라고 한다. 노인들에
따르면 이곳은 예전에 두
집 이 있었는데, 군청에
행정일을 보려면 이 두집
만은 증평이 아닌 청원군
북이면으로 갔다고 한다.

는 그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⁸⁾ 포원 터의 위치는 원평리에서 청원
군 북이면 호명리로 넘어가는 고개 초입에 위치한다.¹⁹⁾ 원평 마을 노인회관
서쪽 삼보산 초입에 있는 소나무 재배지가 포원 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20. 남하리(南下里)

남하리(南下里)는 본래 조선시대때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 지역에 속했
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忠淸
道) 청안현(淸安縣) 남면(南面)에 27개의 동리(洞里)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
재의 남하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금반리(金盤里), 둔덕리(屯德里), 서원리(書
院里) 등 3개리가 있었다. 그 뒤 남하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
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남면
(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
一覽)』에 당시 청안군 남면은 25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서원리(書
院里)가 서동리(書洞里)로 변경되었고, 포천리(浦川里), 금리(金里), 염곡리
(濂谷里), 탑동리(塔洞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포천리(浦川里) 금리(金
里), 염곡리(濂谷里), 탑동리(塔洞里)와 금반리(金盤里), 둔덕리(屯德里), 서동
리(書洞里)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지역이 남쪽 아래가 되므로 남하리라 하여
괴산군 증평읍(邑)에 편입됐다.



증평읍 남하리 전경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증평읍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남하리는 증천지소(曾川支所)에 편입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어 증평읍 남하리가 됐다.

1) 미륵당(彌勒堂)

글염실 서북쪽으로 마을이 위치해 있다. 미륵이 있어서 미륵당이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2) 새터말(新基)

양지말 남쪽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3) 서당골(書堂골)

글염실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당이 있었다고 하여 서당골이라고 불리운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서원리(書院里)라는 마을 이름이 보이는데 이 마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솔모루(金盤)

글염실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소나무가 많은 모룻이 가 되었으며, 지형이 금반형(金盤形)으로 되었다하여 솔모루라고 마을 이름을 붙였다.

5) 양지말(陽村)

솔모루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6) 포천리(浦川里)

솔모루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며 삼기천가에 있는 마을이다.

7) 한내(屯德里)

솔모루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망울로 삼기천가에 있는 마을이다.둔덕리라는 마을 이름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나타난다.



남하1리 솔모루 이정표



남하2리(둔덕리) 이정표

20) 염실마을 노인회관에서 만난 70~80세 되시는 동네 토박이 어른들도 염실 마을에 대한 구전에 대해서 정확히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8) 탑동(塔洞)

글염실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에 탑(塔)과 마애불(磨崖佛)이 있다. 이 동네에서 청원군 북이면 선암리로 넘어가는 옛 고개가 있다.

9) 글염실(廉谷, 廉室)

남하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이다. 옛날에 청렴한 주학자(周學者)가 살면서 후진들을 교육하여 선비들이 많이 났다고 하여 글염실이라고 한다. 글염실과 관련하여 이외의 근세 기록이나 증언은 없다.²⁰⁾ 단지 한자(漢字)의 음인 염곡과 관련된 기록은 조선시대에 남아 있다.

염곡(廉谷)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 보이는 염곡소(念谷所)의 터로 추정된다.

소(所)는 고려·조선시대 말단 기구인 향소부곡(鄉所部曲)을 말하는 것이다.

향·소·부곡은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중에서 주(州)·목(牧)·군(郡)·주현(州縣)·속현(屬縣) 같은 일반 행정구역과는 달리 특수행정구역이다.

소(所)는 고려 때 금(金)·은(銀)·동(銅)·철(鐵)·실(絲)·옷감(紬)·종이(紙)·먹(墨) 같은 수공업품(手工業品)과 차(茶)·생강(生薑)·수산물(水産物) 같은 물품 등 공부(貢賦) 부담을 위한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던 촌락(村落)이다. 향·부곡(鄉·部曲)이 신라 때부터 존재했던 것과는 달리 소(所)는 고려 시대에 들어와 처음 발생했다. 소에 속한 주민들의 신분은 공장(工匠)이었다. 소(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물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그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금소(金所)·은소(銀所)·동소(銅所)·철소(鐵所)·사소(絲所)·주소(紬所)·지소(紙所)·와소(瓦所)·탄소(炭所)·염소(鹽所)·묵소(墨所)·자기소(瓷器所)·어량소(魚梁所)·강소(薑所)·다소(茶所)·밀소(蜜所) 등이 있다.

소(所)는 공물의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설정된 지역이다. 소는 군현제하의 촌락을 기초로 하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특정 물품을 전업적으로 생산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물품의 대납을 위한 역을 전담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군현제하의 일반 촌락과는 구별됐다.

소(所)의 주민은 전문 기술자인 장인(匠人)과 장인의 물품 생산을 돕기 위한 각종의 역(役)을 부담하는 금호(金戶)·은호(銀戶)·염호(鹽戶)·묵호(墨戶)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일반 촌락민(村落民)으로서 신분적으로는 양인(兩人)이었다. 이들은 특정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요역(徭役)의 형태로 동원됐다. 이들 소(所)의 주민에게 부과(賦課)되는 역(役) 자체가 과중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일반 백성들이 이를 꺼리고 회피해 일반 군·현민(郡縣民)과는 차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소(所)의 주민이 공을 세웠을 때에는 포상의 의미로

써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소(所)는 과중한 수탈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도망(流亡)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해 갔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종래 소(所)에서 생산되던 물품을 군현제하의 주민을 동원하여 생산하게 됐다. 12세기 이후 권세가에 의해 수탈된 농민들을 현 거주지에서 공호(貢戶)로 편적한 것은 종래의 본관제(本貫制)를 기초로 해 실현됐던 부곡제적인 수취 체제가 단일화되어 가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수취 체제의 변동과 아울러 소(所)는 점차 해체되었다. 즉,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거나 기존 군현의 일부로 흡수되었고, 조선 초기에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대부분 소멸됐다.

염곡소(念谷所)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중종(中宗) 25년(1530)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이 문헌에도 염곡소는 고적(古跡) 조(條)에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미 염곡소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전의 문헌으로 단종(端宗)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도 염곡소의 기록은 없다. 따라서 염곡소는 14세기에 이미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염곡소는 청당현(靑塘縣)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당현은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태조(太祖) 5년(1396)에 청당과 도안현(道安縣)의 백성이 적고 땅이 좁아 두 현을 합쳐 청안(淸安)으로 명칭을 고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염곡소가 위치했던 청당현이 1396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현에 위치하고 있었던 염곡소도 1396년 이전에 폐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염곡소(念谷所)가 폐지된 후 염곡(念谷)이 염곡(廉谷) 또는 염실(廉室)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염곡소가 존치할 당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증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소금(鹽)과 관계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염곡소 등 고려·조선시대 향소부곡(鄉所部曲)이 위치한 곳은 대체적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 형태의 명당(明堂)에 해당하므로 조선 중기 이후 명문거족(名門巨族)들이 대거 낙향했다.



증평읍 남하리(염실)

제2절

제2절 도안면(道安面)

도안과 관련된 첫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도안은 본래 고구려 도서현(道西縣)이었다. 신라가 이 지역을 접수한 다음 도서현(都西縣)으로 고쳐 흑양군(黑壤郡; 지금의 진천군)에 속했고, 경덕왕(景德王) 때 도안현(道安縣)으로 개명(改名)됐다. 이때에 도안의 치소(置所)는 이성산성(尼城山城) 남성(南城)²¹⁾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안면의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에도 있었다. 비록 『삼국사기』 이전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부터 도안의 역사가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송정리(松亭里)에 위치한 고인돌(支石)과 광덕리(光德里)에 소재한 선돌(立石)로 볼 때 역사시대 이전에도 도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시대(歷史時代)에 도안은 삼국의 접경 지역이었다.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마한(馬韓)의 영역에 속했고,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영역에 속하였다. 이후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있듯이 도안지역은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각축장이었다.

이것은 도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성산성(尼城山城) 서쪽에 나 있는 도로는 고대(古代) 청주에서 충주나 진천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이기 때문에 삼국은 이 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려시대에도 도안지역은 교통로상의 중요한 지역이어서 많은 각광을 받았다.

21) 이성산성을 조사한 발굴단에 따르면 남성(南城)과 북성(北城)은 동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시대에는 남성이 주성(主城)으로 사용되었고, 고려시대 이후에는 주기능이 북성으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忠淸專門大學博物館, 『會坪 尼城山城』, 忠淸專門大學博物館·忠淸北道會坪出張所, 1997년



도안면 소재지 전경

이성산성은 이 때에도 청주에서 충주, 진천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를 감시하는 역할로 중요시 됐다. 이 당시 도안현의 치소는 이성산성 북성(北城)²²⁾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청당현은 일명 청연현(靑淵縣)으로 현종(顯宗) 9년(1018)에, 청주(淸州)의 관할에 속했다고 한다.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도안현의 감무도 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 전기에는 도안과 청연현이 모두 중요시 됐으나 후대로 내려가면서 도안보다는 청당현의 역할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조선시대에 발간된 각종 기록을 살펴보면, 태종(太宗) 5년(1405) 도안현(道安縣)과 청당현(淸塘縣)은 백성이 적고 땅이 좁아 두 현(兩縣)을 합쳐 청안(淸安)²³⁾으로 현(縣)의 이름을 고치고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태종 13년(1413) 법례에 따라 감무(監務)를 현감(縣監)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도안현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호서승람(湖西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 『충청도각군읍지(忠淸道各郡邑誌)』, 『조선환여승람(朝鮮輿地勝覽)』 등 조선시대까지 편찬된 각종 지리지(地理志)에 도안(淸安)은 읍·면(邑面)까지만 기록되어 있어 동리(洞里)를 고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²⁴⁾에는 동리는 물론 호구(戶口)와 인구(人口)까지 기록되어 과거의 도안을 세밀히 살펴 볼 수 있다.

오늘날 도안에 해당하는 청안현의 북면(北面)에는 대자랑리(大自朗里), 백암리(白巖里), 대지곡리(大枝谷里), 노고곡상리(老顧谷上里), 노고곡하리(老顧谷下里), 연치리(硯峙里), 입장리(笠長里), 탑동리(塔洞里), 법곡리(法谷里), 칠정리(七井里), 가정리(佳亭里), 칠송정리(七松亭里), 월로리(月老里), 구화리(九化里), 와동리(瓦洞里), 행정리(杏亭里), 상작달리(上爵達里), 상작달하리(上爵達下里), 칠곡리(七谷里), 명암상리(鳴巖上里), 명암하리(鳴巖下里), 석화리(石花里), 산정리(山亭里), 귀개리(龜介里), 천광리(天光里), 모산리(茅山里), 백곡리(柏栢谷里), 반곡리(盤谷里), 광암리(廣巖里), 진암상리(鎭巖上里), 진암하리(鎭巖下里), 구암리(九巖里), 입원리(笠院里), 금당리(金塘里), 상방목리(上方目里), 하방목리(下方目里) 등 36개 동리(洞里)가 있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따르면 오늘날 도안에 해당하는 청안군(淸安郡) 북면(北面)에 명암리(鳴岩里), 행화정리(杏花亭里), 상작리(上作里), 하작리(下作里), 칠곡리(七谷里), 도암리(道岩里), 금당리(金塘里), 진암리(鎭岩

22) 각주 21) 참조

23) 청당현(淸塘縣)에서 청(淸)을 도안현(道安縣)에서 안(安)을 따서 청안현(淸安縣)으로 개명한 것 같다.

24) 조선시대 중경(中京)과 각도(各道), 각읍(各邑)의 호수(戶數)와 인구수(人口數)를 수록한 호구통계 기록(戶口統計記錄)으로 정조(正祖) 13년(1789)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호(元戶)는 물론 남녀수(男女數)까지도 기록하고 있으므로 조선조(朝鮮朝)의 호구변화(戶口變化)를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金榮振, 朴文烈, 『槐山郡文獻資料集(地理志 翻譯篇)』, 槐山文化院, 1997년 389-404쪽

리), 광암리(光岩里), 백곡리(柏谷里), 모산리(毛山里), 덕암리(德岩里), 천광리(天光里), 귀계리(歸溪里), 석화리(石花里), 전당리(錢塘里), 비석촌리(碑石村里), 성도리(城都里), 구화리(九花里), 소강정리(小江亭里), 월강리(月江里), 칠송리(七松里), 입장리(立長里), 노상리(老上里), 노하리(老下里), 가정리(柯亭里), 점촌리(店村里), 연촌리(硯村里), 백암리(白岩里), 대지곡리(大支谷里), 신곡리(新谷里), 도안리(道安里), 자양리(紫陽里) 등 33개 동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표 2 도안면의 변천 참조〕

그리고 당시의 호수(戶數)는 501호(戶)이고, 인구(人口)는 남자(男子) 1,003명 · 여자(女子) 1,213명 등 총 2,216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31년(1894) 6월 22일 개화당(開化黨)이 집권하여 갑오개혁(甲午改革)을 실시, 신분제(身分制)와 과거제(科擧制)를 폐지하고 궁정(宮廷)과 정부(政府)를 분리하는 등 중앙관제(中央官制)를 전면 개혁했다. 중앙관제를 개편한 지 1년 후인 1895년 5월 25일 칙령 제101호를 공포함으로써 지방관제도 개혁이 단행됐다. 이에따라 태종 이래 482년간 계속되어 온 8도제(道制)가 폐지되고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를 채택, 기존의 유수부(留守府) · 부(府) · 목(牧) · 대도호부(大都護府) · 도호부(都護府) · 군(郡) · 현(縣)을 23부(府) 337군(郡)으로 개편됐다. 이때에 부에는 관찰사(觀察使)를, 군에는 군수(郡守)를 두어 지방행정을 총괄했다. 이때 도안지역은 청안현 북면에서 청안군(淸安郡) 북면으로 승격됐다. 이후 건양 2년(1896년) 8월 4일자(勅令 36호)로 23부 337군을 1수부(首府) 1목 7부 331군으로, 광무(光武) 8년(1905)말까지는 1수부 13도 1목 3부 339군으로 개편됐다. 이때에 충청좌도(忠淸左道)가 충청북도가 되어 17개 군을 관할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행정이 개편됐다.

최근에 발견된 광무 연간(光武 : 1897~1907)의 청안군(淸安郡) 북면(北面) 백암리(白岩里) 호적대장(戶籍臺帳)²⁵⁾에 따르면 면장(面長)과 이장(里長)에 해당하는 집강(執綱)과 존위(尊位), 그리고 통장(統長)에 해당하는 통수(統帥)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호적대장에는 호주(戶主)의 이름과 나이

(歲), 본관(本貫), 직업(職業), 아버지(父) · 어머니(母) · 할아버지(祖父), 증조할아버지(曾祖父) · 외할아버지(外祖父)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부인(婦人) · 아들(子, 孫子女 포함) · 며느리(子婦)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가옥(家屋)의 규모(規模)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광무 연간(光武 : 1897~1907)에 오늘날과 같은 지방행정 조직(面 · 里 · 統)이 구축됐음을 알 수 있다.

1895년 개편된 지방행정제도가 1910년 면

25) 필자가 도안면지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노암리 이장댁에서 발견했다.



도안면사무소 전경

(面)의 행정구역(行政區域)이 법정지위(法政地位)를 갖게 됨에 따라 청안군 북면은 점촌리(店村里), 연촌리(硯村里), 노상리(老上里), 노하리(老下里), 백암리(白岩里), 신곡리(新谷里), 대지곡리(大支谷里), 칠송리(七松里), 입장리(立長里), 소강정리(小江亭里), 월강리(月江里), 가정리(柯亭里), 전당리(錢塘里), 비석리(碑石里), 구계리(九溪里), 천광리(天光里), 덕암리(德岩里), 모산리(毛山里), 석화리(石花里), 지곡리(池谷里), 광암리(光岩里), 백곡리(栢谷里), 진암리(鎭岩里), 성도리(城都里), 구화리(九花里), 상작리(上作里), 하작리(下作里), 행정리(杏亭里), 칠곡리(七谷里), 명암리(鳴岩里), 금당리(金塘里), 도암리(道岩里), 은행정리(銀杏亭里) 등 33개리를 관할했다.

1914년 일본제국주위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폐합(統廢合)할 때 청안군 서면(西面)의 진암리(鎭岩里) 일부와 음성군(陰城郡) 원서면(遠西面)의 눌문리(訥文里) 일부를 병합하여 화성리(花城里), 도당리(道塘里), 석곡리(石谷里), 광덕리(光德里), 송정리(松亭里), 노암리(老岩里), 연촌리(硯村里) 등 7개리로 개편하고 면(面)이름도 북면(北面)에서 옛 도안현(古道安縣)의 이름을 따라 도안면(道安面)으로 고치고 행정구역을 괴산군(槐山郡)에 속하게 했다.²⁶⁾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도·부·군·도(島)의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도안면은 괴산군에 속하게 됐다.²⁷⁾

이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으나 도안·증평지역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에서 자치단체 설치 전단계인 충청북도 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승격되어 도안면(道安面)은 도안지소(道安支所)로 개편됐다.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도안지소는 화성리(花城里), 도당리(道塘里), 석곡리(石谷里), 광덕리(光德里), 송정리(松亭里), 노암리(老岩里), 연촌리(硯村里) 등 7개리로 구성됐다.

1990년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설치 이래 도안·증평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자치단체 설립이 마침내 이루어져 2003년 5월 29일 법률제6902호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3개월 뒤인 2003년 8월 30일 증평군(曾坪郡)이 공식 설치되어 증평군 도안면이 됐다.

도안면의 동쪽은 괴산군(槐山郡) 사리면(沙梨面), 남쪽은 같은 군 증평읍(曾坪邑), 서쪽은 진천군(鎭川郡) 초평면(草坪面), 북쪽은 음성군 원남면(遠南面)에 각각 접하고 있다.

26) 괴산군지편찬위원회, 『괴산군지』, 1990년 460쪽

27) 金洪基外 編著, 『地方行政組織制度史』, 忠淸北道, 1992년 294쪽

● ● 표 2. 도안면의 변천

현재의 동리명	1914년 동리명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1912년) 洞里名	戶口總數(1789년경) 洞里名
花城里	花城里	淸安郡 北面 城都里, 九花里, 上作里, 杏花亭里, 七谷里, 下作里, 鳴岩里, 碑石里 일부	淸安縣 北面 九化里, 上爵達里, 杏亭里, 七谷里, 上爵達下里, 鳴岩上里, 鳴岩下里 일부
老岩里	老岩里	淸安郡 北面 老上里, 白岩里, 新谷里, 大支谷里, 老下里 일부	淸安縣 北面 老顧谷上里, 白巖里, 大枝谷里, 老顧谷下里 일부
硯村里	硯村里	淸安郡 北面 店村, 硯峙里 일부	淸安縣 北面 硯峙里 일부
松亭里	松亭里	淸安郡 北面 七松里, 立長里, 小江亭里, 月江里, 柯亭里, 錢塘里, 老下里, 碑石里 일부	淸安縣 北面 七松亭里, 笠長里, 月老里, 佳亭里, 塔洞里, 法谷里, 七井里, 老顧谷下里 일부
光德里	光德里	淸安郡 北面 歸(九)溪里, 天光里, 毛山里, 德岩里, 屯山里, 石花里, 池谷里 일부 陰城郡 遠西面 訥文里 일부	淸安縣 北面 歸介里, 天光里, 茅山里, 石花里 일부
石谷里	石谷里	淸安郡 北面 光岩里, 栢谷里, 池谷里, 石花里, 鎭岩里 일부	淸安縣 北面 廣巖里, 栢谷里, 石花里, 鎭巖上里·鎭巖下里 일부
道塘里	道塘里	淸安郡 北面 金塘里, 道岩里, 鎭岩里, 銀杏亭里 일부 淸安郡 近西面 鳴岩里 일부 槐山郡 西面 眞岩里 일부	淸安縣 北面 金塘里, 鎭巖上里·鎭巖下里, 漢城銀杏亭里 일부

1. 화성리(花城里)

28) 화성리 뒷산의 형태가 긴 곳(串)의 모양을 하고 있어 꽃산으로 불리우던 것이 후에 꽃산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꽃산을 한역하는 과정에서 화산(花山 또는 華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성리는 마을 뒷산의 진달래꽃이 만발해 화산(花山, 꽃산)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²⁸⁾ 이 동네는 본래 조선시대 때는 청안현(淸安縣) 북면(北面) 지역이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청안현의 북면에 33개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화성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명암상리(鳴巖上里), 명암하리(鳴巖下里), 행정리(杏亭里), 상작달리(上爵達里), 상작달하리(上爵達下里), 칠곡리(七谷里), 구화리(九化里)등 7개리가 있었다. 그 뒤 화성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북면(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서도 당시 청안군 북면은 33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명암상리(鳴巖上里)와 명암하리(鳴巖下里)가 합쳐져서 명암리(鳴岩里)로 불리게 됐고, 행정리는 행화정리(杏花亭里)로, 상작달리(上作達里)는 상작리(上作里)로

상작달하리(上爵達下里)는 하작리(下爵里)로, 구화리(九化里)는 구화리(九花里)로 바뀌었고, 비석리(碑石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면의 성도리(城都里), 구화리(九花里), 상작리(上作里), 하작리(下作里), 행화정리(杏花亭里), 칠곡리(七



도안면 화성2리 전경

곡리), 명암리(鳴巖里), 비석리(碑石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구화리와 성도리의 이름을 따서 화성리라고 지명을 정해 괴산군 도안면에 편입됐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가 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도안면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會坪出張所)로 바뀔 때 화성리는 도안지소(道安支所)에 속하고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므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가 됐다.

1) 귀봉정(歸鳳亭, 구궁정)

귀봉정이라는 지명은 옛날 이곳에 귀봉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옛날 궁터가 있었다고도 전하며, 아주 큰 대장간이 있어 이곳에서 무기(武器)를 만들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2) 남촌(南村)

명암리 마을의 남쪽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3) 옥현(獄峴)

명암마을 행화정에서 증평 진모랭이들로 넘어 가는 고개이다. 옛날 이곳에 감옥(監獄)이 있었다고 해서 옥고개(獄峴)로 불리게 됐다.

4) 진모랭이

진 모롱이의 충청도 사투리로 울어바위(鳴岩)의 남촌(南村)에서 증평쪽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있는 긴 모퉁이이다.

5) 행정(杏亭, 杏花亭)

도안역 앞에 있는 역전마을을 말한다. 옛날에 이곳에 행화정이라는 살구나무 정자가 있어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도안면 화성2리 차성진 추모비

행화정리는 1927년 충북선이 개통된 후 1928년 건립된 도안역(道安驛)이 위치한 동네로 역(驛) 앞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역전(驛前) 마을이라고 불린다. 그러다보니 본래의 지명인 행화정리(또는 행정리)보다도 역전마을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의 북쪽으로는 성도리(城都里)가 자리 잡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상작(上作)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의 형세는 국도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행화정리의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

총수(戶口總數)』에 행정리(杏亭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1912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따르면 행화정리(杏花亭里)로 마을 이름이 변경됐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화정리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곳에는 1920년경 이 마을에 자리 잡은 도안파출소(道安派出所)와 1923년 가무지(錢塘)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도안면사무소(道安面事務所), 도안우체국(道安郵遞局)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도안역은 남쪽으로는 증평역과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음성 보천역과 인접하고 있다.

6) 성도리(城都里)

성도리는 화성리의 북쪽 끝으로 송정리(松亭里)·광덕리(廣德里)와 이웃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는 음성군 백마령(白馬嶺)에서 발원하여 내려오는 문암천(文岩川)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매봉산(鸚峯山)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다. 이 마을은 성도리와 귀봉정, 그리고 비석촌(碑石村)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비석촌은 경지정리로 인하여 훼손되어 사라진지 오래다. 지금은 성도리와 귀봉정 마을이 화성 1리를 구성하고 있다. 1925년 이 마을에 도안초등학교(道安初等學校)가 개교됐다.

7) 상작(上爵, 윗 작다리)

상작 마을은 새말장독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상작 마을의 북쪽에는 행화정리와 이웃하고 있고, 하작 마을은 산모퉁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명

암마을의 북촌과 약간 떨어져 있다.

상작 마을의 지명을 살펴보면,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 상작달리(上爵達里)와 상작달하리(上爵達下里)라는 지명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명은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상작(上作)과 하작(下作)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상작 마을의 지명은 일제시대에 들어서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상작이라는 지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상작마을 남쪽에 하작과 인접하는 산뿌리를 새말장독이라고 부른다. 그 위쪽에는 과랑골이 있었고, 또한 옛날부터 약수로 소문난 서당골이 있었다. 한편 마을 서북쪽으로는 금박골과 작은 재 뿌리, 그리고 벼락골로 이어졌다. 마을 앞(동쪽)으로 주랏들, 해남들, 새봇들 사이로 화성천(花城川)이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작마을은 4차로의 36번 국도로 둘러싸인 마을이다.

8) 하작(下爵, 아래작다리)

하작 마을은 새말장독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이곳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주막촌이라고도 불렸다. 이곳은 괴산과 충주, 그리고 증평으로 이어지는 삼거리로 교통상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 주막이 있어 증평과 음성, 괴산 장(場)으로 드나들던 장꾼들이 쉬어가던 곳이다. 지금은 주막이 없어졌지만,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상작 마을의 지명을 살펴보면,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서 상작달리(上爵達里)와 상작달하리(上爵達下里)라는 지명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명은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상작(上作)과 하작(下作)으로 변경됐다. 이와 같이 하작 마을의 지명은 일제시대에 들어서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후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하작이라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도안면 화성3리(상작) 전경



도안면 화성4리(하작) 전경

9) 서당골(書堂골)

서당골(書堂골)은 상작마을 남쪽 골짜기에 있었던 마을이다. 근대식 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이 마을에서 학동(學童)들을 모아 천자문(千字文)을 비롯한 동몽선습(童蒙先習) 등의 한문교육을 시켰던 서당(書堂)이 있어서 서당골로 불리게 됐다. 또한 이곳은 옛날부터 피부병 치료에 좋다는 약수터가 있어서 매일 같이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약수터는 현재 빨래터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10) 비석촌(碑石村)

비석촌(碑石村)은 본래 귀봉정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농경지(農耕地)로 변하여 없어진 마을이다. 옛날 이곳에는 비문(碑文)이 없는 비석(碑石)이 한 개 있었으나 1941년 수해로 매몰됐다고 한다. 이 비석으로 인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됐으며, ‘비석거리’ 라고도 불린다.

11) 명암(鳴岩, 울어바위, 우리바위)



도안면 화성5,6,7리(울어바위)
이정표

명암 마을은 소위 ‘울어바위’ 또는 ‘우르배’ 등으로 불리고 있다. 명암 마을은 화성리에 속한 마을 중에서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남촌·북촌·행화정 등 3개 마을과 이웃하고 있다. 남촌에서 증평으로 가는 길에 길 모퉁이(모퉁이)가 있는데 이것이 진모랭이다. 명암사람들은 이 고개와 모퉁이를 통해서 증평장을 보러 갔다고 한다. 명암이라는 마을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도 기록돼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명암리

는 당시에 명암상리(鳴岩上里)와 명암하리(鳴岩下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명암리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 두 마을이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1914년에 다시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명암리는 화성리에 속하게 됐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명암마을은 이성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줄기가 마을 뒤의 상산봉(上山峯)을 이루고, 이 산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칠곡산(七谷山)과 주실산(珠實山)이 뻗어있으며, 왼쪽으로는 안산(安山)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마을 남쪽 안산(安山)의 아래에 넓고 웅장한 바위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던 승려가 탄복하면서 이 바위가 유명한 바위라고 하며 그

위에 ‘명암(鳴巖)’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가의 대란이 일어나면 바위가 황소처럼 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 뒤부터 마을의 이름을 명암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이 전해오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때에 바위가 울었다고 한다.

주민들에 의하면 ‘명암’이라고 새겨진 바위는 세 곳에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경술국치(庚戌國恥) 이전에 마을 입구 빨래터에, 두 번째는 북촌에, 세 번째는 남촌 꼭대기에 있었다고 한다. 남촌의 바위는 경술국치(庚戌國恥)때 울었다고 전한다. 이 바위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90여년 전 일본제국주의시대에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청주~충주간 도로와 철도가 부설되면서 땅속에 묻히게 됐다고 한다.

2. 노암리(老岩里)

노암리(老岩里)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淸安縣) 북면(北面) 지역에 속해 있었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기록에 현재의 노암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노고곡상리(老顧谷上里), 백암리(白岩里), 대지곡리(大支谷里), 노고곡하리(老顧谷下里) 등 4개리가 있었다. 그 뒤 노암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북면(北面)행정구역에 속하게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



도안면 노암리 전경

一覽)』에서도 당시 청안군 북면은 33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노고곡상리(老顧谷上里)는 노상리(老上里)로, 노고곡하리(老顧谷下里)는 노하리(老下里)로 지명이 바뀌었으며, 신곡리(新谷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면의 노상리(老上里), 백암리(白岩里), 대지곡리(大支谷里), 신곡리(新谷里), 노하리(老下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노상·노하리와 백암리의 이름을 따서 노암리라고 하여 괴산군 도안면에 속하게 됐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괴산군 도안면 노암리가 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도안면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노암리는 도안지소(道安支所) 행정구역에 속하게 됐다. 그리고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 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므로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가 됐다.

1) 괴정(槐亭, 노하리)

등구머리 마을은 초입에 있는 느티나무로 인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마을 이름과 관련된 느티나무는 현재 없어서 수령이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수령이 400여년 정도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고장을 개척한 선조들이 봄놀이 때 심었다고 전해진다. 이 느티나무는 어른 7명이 양팔을 벌려야만 손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였다고 한다. 국난(國難)이 있을 때는 밤에 울었다고 하며,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6·25때 느티나무의 울음 소리를 경험했다고 한다. 현재는 새로 심은 느티나무가 서 있다.

이 마을은 노하리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노고곡하리(老顧谷下里)로 기록되어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노하리(老下里)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1912년 이전에 마을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2) 노상리(老上里)

노상리 마을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노고곡상리(老顧谷上里)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노암리에서도 유서가 깊은 마을로 추정된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

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노상리(老上里)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1912년 이전에 마을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3) 노실(魯室, 老谷, 新明, 뇌실)

뇌실마을은 노실(老室), 노곡(魯谷)이라고도 불린다. 이 마을 이름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노고곡상리(老顧谷上里), 노고곡하리(老顧谷下里)가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노상리(老上里)와 노하리(老下里)로 기록되어 있어, 1912년 이전에 마을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노암리라는 이름은 노실의 ‘노’자와 백암리의 ‘암’자를 따서 ‘노암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뇌실마을은 일제시대 이후 신명(新明)으로 불려오다가 최근에 다시 옛 이름인 뇌실로 고쳐 부르고 있다.



도안면 노암3리(뇌실) 이정표

4) 백암리(白岩里, 뱀티)

백암리라는 마을 이름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백암리(白巖里)로 표기되어 있었고,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지금과 같은 백암리(白岩里)로 기록되어 있다.

백암리라는 마을 이름은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가 하얀빛을 띠고 있어서 흰바위 즉, 백암이라고 유래됐다. 이 바위는 현재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도안면 노암2리(백암)마을 전경

한편 백암리는 뱀티라고도 불린다. 이 마을 뒷등성이가 뱀처럼 길게 뻗어 있어서 뱀티라고 불리워졌다고 한다. 동네 촌로들의 말에 따르면 일제가 뱀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잘라 신작로(新作路)를 내었기 때문에 동네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뱀티는 양짓말과 음달말로 나누어져 있다.

5) 신곡(新谷, 珍登)

신곡이라는 마을 이름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처음 등장한다. 원래 이 마을은 행갈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동네가 커지자 1912년 이전에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이 행갈에서 분리되면서 신곡이라고 불린 것으로 추정된다.

신곡 마을은 진등(珍登)이라고도 불린다. 이 마을은 뇌실마을 남쪽 긴 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도안면 노암1리(황포) 이정표

6) 황포(黃浦, 행갈)

행갈 마을은 일제시대 이후 황포(黃浦)로 불려왔으나, 최근에 다시 본래 마을 이름을 살려 '행갈'로 부르고 있다.

옛날에 마을 한복판으로 개울이 흘렀는데, 비가 많이 오고 난 후면 마을에 누런 흙탕물이 범람했다고 하여 황포라고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3. 송정리(松亭里)

송정리(松亭里)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 북면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 청안현 북면에 33개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송정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전원리(錢院里), 월로리(月老里), 칠송정리(七松亭里), 입장리(笠長里), 탑동리(塔洞里), 법곡리(法谷里), 칠정리(七井里), 노고곡하리(老顧谷下里), 가정리(佳亭里) 등 9개리가 있었다. 그 뒤 송정리는 건양(建陽) 원년(1896)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 중에서 북면(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서도 당시 청안군 북면은 33개리를 관할하고



도안면 송정리 전경

있었다. 그 사이 칠송정리(七松亭里)가 칠송리(七松里)로, 입장리(笠長里)가 입장리(立長里)로, 월로리(月老里)가 월강리(月江里)로, 가정리(佳亭里)가 가정리(柯亭里)로, 전원리(錢院里)가 전당리(錢塘里)로, 노고곡하리(老顧谷下里)가 노하리(老下里)로 바뀌었으며, 탑동리(塔洞里), 법곡리(法谷里), 칠정리(七井里)가 사라지는 대신 소강정리(小江亭里), 비석리(碑石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면의 칠송리(七松里), 입장리(立長里), 소강정리(小江亭里), 월강리(月江里), 가정리(柯亭里), 전당리(錢塘里), 노하리(老下里), 비석리(碑石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칠송리의 송자와 소강정리의 정자를 따서 송정리라고 하고 괴산군 도안면에 속하게 됐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괴산군 도안면 송정리가 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도안면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송정리는 도안지소(道安支所) 행정구역에 속하게 됐다. 그리고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 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므로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가 됐다.

1) 칠송(松亭里, 七松, 통폐)

통미 마을은 마을 중앙에 통처럼 작고 동그랗게 생긴 산이 있어서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지금은 옛날 동산이 다 깎여나가 그 흔적만 남아 있다. 그 동산에 일곱 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통미 외에도 ‘칠송’이라고도 불리운다. 칠송과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칠송정리(七松亭里)가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 보면, 칠송정리는 칠송리(七松里)로 변경됐다.



도안면 송정2리(칠송정) 전경

(1) 가장리

가장리는 통미 마을 중에서도 개울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몇몇 집들을 한정지어 부르는 말이다. 가장은 가장자리의 뜻이다. 집들이 개울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2) 탑동리(塔洞里)

탑동리는 통미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0.25km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으로 다락고개가 있고, 이 다락고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이다. 현재는 그 일대가 밭으로 변했다. 밭을 만들 때 기와편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으로 볼 때 옛날 그 곳에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마을은 없어졌으나 지금도 그 일대를 탑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 마을과 관련하여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탑동리(塔洞里)라는 마을이 기록되어 있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1912년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3) 법곡리(法谷里)

법곡리(法谷里)는 통미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0.7km 올라가 다보면 왼쪽으로 비각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이다. 마을이 없어지자 ‘법곡리’라는 마을 이름도 없어졌지만, 지금도 그 일대를 법곡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법곡리(法谷里)라는 마을이 기록되어 있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1912년 이전에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안면 송정리 입장저수지

2) 입장(立場)

입장 마을은 송정리 내에서도 가장 북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마을 이름과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입장리(笠長里)가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입장리(笠長里)는 입장리(立長里)로 변경됐다.

3) 소강정(小江亭)

소강정 마을은 들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옆에는 연암골에서 발원한 물이 흐르고, 이 물은 다시 맞은편에 있는 월강마을 앞으로 흐르는 물과 합쳐져서 가무지마을을 지나 석곡리로 흐른다.

소강정이란 마을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전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연봉준이 큰 부자로 살면서 마을 앞에 흐르는 물가에 정자(亭子)를 짓고 살게 된 이후로 소강정이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이 마을 이름이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기록이 없으며,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1912년을 전후해서 새로 생긴 마을로 추정된다.

4) 월강(月江, 月江里)

월강마을은 통미 마을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들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입장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통미 마을을 거쳐 흐르는 내(川)가 마을 앞으로 흐른다. 내 옆에는 둥그런 자연석에 월강이라 새긴 표지석이 있고, 마을 뒤로는 충북선 철도가 지나간다. 이 충북선 너머에 뗏집거리라 하여 몇 집이 살고 있었는데, 1981년 충북선 복선 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

이 마을 이름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월로리(月老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월로리(月老里)는 월강리(月江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도안면 송정리 이정표

(1) 뗏집거리

월강 마을 뒤로 충북선 철도가 지나가고 그 철도 너머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이다. 광복 이전까지만 해도 4~5가구가 있었지만, 1981년 충북선 철도 복선 공사를 하면서 사라졌다.

이 동네에 있었던 집들이 때로 토담을 쌓아서 지었다고 하여 뗏집거리라고 불렀다. 또한 이곳에 주막이 있어서 뗏주막거리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5) 전실(錢室, 가무지)

전실 마을과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전실(錢室)마을 이름의 기록이 없으며,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전당리(錢塘里)라는 마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도안면 송정5리(가무지) 전경

마을 이름을 전원 또는 전당이라 부르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현재는 전당이라는 이름보다는 가무지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더 알려졌다.

가무지라는 이름은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노래하고 춤추는 곳이라 하여 가무지라 부른다고 한다. 구체적인 유래는 다음과 같다.

연명흠의 5대조인 연서조는 벼 천석을 하는 대부호로 흉년이 들 때마다 인근의 괴산, 청안, 음성, 진천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니

순조(純祖 1829,己丑) 임금께서 친히 품계를 절충장군으로 올리고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하사했다. 이렇듯 연서조가 후히 베풀고 사니 청안 고을 원(縣監)이나 가까운 벗들이 자주 와서 글을 짓고 춤추며 놀았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마을을 가무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래는 옛날 이곳에 주막이 많이 있어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많아 가무지라고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구전(口傳)된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폐합(統廢合)할 때 청안군 서면(西面)의 진암리(鎭岩里) 일부와 음성군(陰城郡) 원서면(遠西面)의 눌문리(訥文里) 일부를 병합하여 화성리(花城里), 도당리(道塘里), 석곡리(石谷里), 광덕리(光德里), 송정리(松亭里), 노암리(老岩里), 연촌리(硯村里) 등 7개리로 개편하고 면(面)이름도 북면(北面)에서 옛 도안현(古道安縣)의 이름을 따라 도안면(道安面)으로 고치고 괴산군(槐山郡)에 편입(編入)시켰다. 이때 일본제국주의는 도안면소재지를 가무지마을에 두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었던 면사무소는 1927년 충북선이 개통된 후 1928년 건립된 도안역(道安驛)이 위치하고 있는 화성리로 이전됐다.

가무지마을은 원래 들판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이었는데 마을 한복판으로 36번 국도가 나면서 집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졌다.

1976년 가무지마을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1979년 이 마을에 있던 열두가구가 지금의 소강정마을 바로 옆으로 이주했다. 이렇듯 다시 마을이 나누어져 옛 가무지를 가무지라 하고 새로 이주하여 열두가구가 사는 마을을 새동네라 부르고 있다.

6) 신촌(新村, 새동네)

신촌 마을은 1979년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1976년 가무지마을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1979년에 이 마을에 있던 열두가구가 지금의 송정 4구인 소강정마을 바로 옆으로 이주하여 새로 마을을 만들면서 새동

네라고 마을 이름을 지었다.

7) 가정(柯亭, 가정골)

가정골은 소강정 서쪽에 위치하고 있던 마을이다. 이 마을 이름과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가정리(佳亭里)가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고시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가정리(佳亭里)는 가정리(柯亭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리는 1979년 현재의 송정 5구인 새동네가 소강정마을 옆에 새로 생길 때만 해도 네가구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남아 있던 네가구가 새동네나 다른 마을로 떠나면서 가정골이라는 마을은 없어졌다. 현재 마을이 있었던 자리는 농경지로 변했다.

4. 석곡리(石谷里)

석곡리(石谷里)는 본래 조선시대 청안현(淸安縣) 북면(北面)에 속해 있었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 현재의 석곡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광암리(廣巖里), 백곡리(柏谷里), 지곡리(池谷里), 석화리(石花里), 진암상리(鎭巖上里), 진암하리(鎭巖下里) 등 6개리가 있었다. 그 뒤



도안면 석곡리 전경

석곡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북면(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서도 당시 청안군 북면은 33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광암리(廣巖里)가 광암리(光岩里)로 바뀌었으며, 진암상리(鎭巖上里)와 진암하리(鎭巖下里)가 진암리(鎭岩里)로 합쳐졌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면의 광암리(光岩里), 백

곡리(柏谷里), 지곡리(池谷里), 석화리(石花里), 진암리(鎭岩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석화리의 석(石)자와 백곡리의 곡(谷)자를 따서 석곡리라 하고 괴산군 도안면 행정구역이 됐다.

광복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괴산군 도안면 석곡리가 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도안면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會坪出張所)로 바뀔 때 석곡리는 도안지소(道安支所)에 속하게 됐다. 그리고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므로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가 됐다.

1) 석화리(石花里)

석화리라는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석화리(石花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도 석화리(石花里)라는 지명이 나와 있다.

2) 백곡(柏谷, 뒷골)



도안면 석곡1리 이정표

백곡리라는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백곡리(柏谷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백곡리(柏谷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3) 후동(後洞, 뒷골)

후동 마을은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본래 있던 마을의 뒤에 위치하여 만들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은 돌꼬지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여 생긴 마을이다.

후동 마을은 언덕 너머에 있는 산우물 마을과 밀접하게 연관있는 마을로 실제로 거의 붙어 있다. 뒷골이라는 마을 이름 역시 산우물 마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뒷골이라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4) 풍동(風洞, 바람골, 반응동)

이 마을은 현재 바람골이라 하여 한자로는 風洞이라 하



도안면 석곡2리 이정표

지만, 그 유래는 불분명하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이 동네는 본래 반응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주변 지세가 용(龍)의 기운이 서려 있는 형세를 하여 반응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여 바람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산정(山井, 산우물)

산우물 마을은 애국지사 연병호 선생의 생가가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이름과 관련된 우물이 연병호선생 기념관 가장자리에 두 개가 있다. 이처럼 산 위에 우물이 있어서 마을의 이름도 산우물이라고 유래됐다. 그 중 하나가 연병호선생의 생가 뒷산아래 있는 옷샘이다. 이 샘은 지금도 물이 솟아나 샘을 이루고 있지만, 기념관 건립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어 실제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물은 유난히 차가워 무더운 여름철 땀띠가 나더라도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면 금방 나았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옷샘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샘은 오도샘이라고 불리는데, 현재는 석곡1리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샘의 본래 모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이 샘 역시 옷 샘과 마찬가지로 수량이 풍부했다고 한다.



도안면 석곡1리 산우물

6) 양촌(陽村, 양지말)

보강천 다리를 건너 곧게 난 길을 따라 가다보면 ‘아벨정밀’이라는 공장이 나온다. 이 공장을 지나면서 길은 오른쪽으로 곧게 뻗은 농로는 사리면으로 가는 포장도로와 만나게 된다. 이 길을 따라 논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이 논 너머로 나지막한 야산이 반산이다. 이 반산을 끼고 형성된 마을이 양지말과 턱골이다.

턱골로 들어가는 길은 양지말을 오른쪽으로 두고 언덕을 따라 작은 오솔길이다. 오른쪽으로는 낮은 언덕을, 왼쪽으로는 산 사이 좁은 밭을 끼고 꼬불꼬불한 길을 따르다 보면 고개 너머 마을이 나타난다.

이 마을은 논농사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턱골 마을의 북쪽 등성이 너머에 반지울이라는 자연 마을이 있다. 과거에는 서너집이 있었으나 현재는 단 한 집만 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폐가가 돼 없어졌다.



도안면 석곡2리(양지말) 이정표

7) 진암(鎭岩)

진암리와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진암리 이전에 진암상리(鎭巖上里)와 진암하리(鎭巖下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진암상리(鎭巖上里)와 진암하리(鎭巖下里)가 합쳐져서 진암리(鎭岩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광덕리(光德里)



도안면 광덕1리 전경

광덕리는 본래 조선시대때 청안현(淸安縣) 북면(北面)에 속해 있었다. 조선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 현재의 광덕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귀개리(歸介里), 천광리(天光里), 모산리(茅山里), 둔산리(屯山里), 석화리(石花里), 지곡리(池谷里) 등 6개리가 있었다. 그 뒤 광덕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

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북면(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서도 당시 청안군 북면은 33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귀개리(歸介里)가 구계리(龜溪里)로, 모산리(茅山里)가 모산리(毛山里)로, 바뀌었으며, 덕암리(德岩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면의 구계리(龜溪里), 천광리(天光里), 모산리(毛山里), 덕암리(德岩里), 둔산리(屯山里), 석화리(石花里), 지곡리(池谷里)의 일부와 음성군(陰城郡) 원서면(遠西面) 눌문리(訥文里) 일부를 병합하여 천광리와 덕암리의 이름을 따서 광덕리라고 하여 괴산군 도안면에 속하게 됐다.

광복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괴산군 도안면 광

덕리가 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도안면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광덕리는 도안지소(道安支所)에 행정구역에 속했다. 그리고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므로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가 됐다.

1) 구계(龜溪)

덕암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마치 거북이가 시냇물을 보고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하여 거북 구(龜)자와 시내 계(溪)자를 써서 구계라고 마을 이름을 고쳤다고 한다.

구계리와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귀개리(歸介里)가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귀개리(歸介里)는 귀계리(歸溪里)로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폐합 할 때 구계리(九溪里)로 기록했고, 현재 마을사람들에 의해서 구계리(龜溪里)로 다시 개명됐다.



광덕1리 구계 이정표

2) 덕암(德岩, 옷골, 요동)

덕암 마을은 천광 마을의 남쪽, 모산 마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큰떡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이 떡바위, 덕암이라고 유래됐다고 한다. 현재는 이 바위를 찾아 볼 수 없다. 최근에 중장비를 이용해 논을 객토하는 과정에서 묻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바위가 넓어 그 위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떡을 찌는 데도 사용했다고 한다. 이 바위에서 연유하여 마을 이름이 덕바우 또는 떡바우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덕암리와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러나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덕암리(德岩里)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은 1912년 무렵에 새로 만들어진 동네로 추정된다.

한편 덕암 마을에서 구계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금도 서낭고개라고 부른다. 예전에 서낭목(木)이 있어서 서낭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서낭목은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베어져 지금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도안면 광덕3리(옷골) 이정표

3) 모산(毛山, 池谷洞)



도안면 광덕2리 전경

광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옛날 주변이 모두 벌거숭이 산이었으나, 이 마을의 산만은 울창했기 때문에 모산이라고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또한 이 마을에 못이 있었다 하여 지곡(池谷)이라고도 한다.

모산리와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

(戶口總數)』에 기록된 모산리(茅山里)가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모산리(茅山里)는 모산리(毛山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12년 기록에 지곡리(池谷里)가 표기된 것으로 보아 모산 마을과 지곡 마을은 1912년 무렵에 별개로 존재하다가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통폐합 할 때 합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4) 천광(天光)



도안면 광덕3리 전경

덕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천광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고 한다. 현재는 옛 절터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천광리와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천광리(天光里)가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도 천광리(天光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동네의 역사는 오래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천광리는 안천광과 바깥천광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마을은 광덕리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안천광에는 대부분 밭이 있었으며, 동쪽부터 음달골, 양달골, 나무골의 골짜기를 포함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에는 광덕 소류지(천광저수지)가 있었다.

바깥천광은 안천광을 지나 위치하며, 안천광과는 달리 대부분 논으로 이루어졌다. 바깥천광 마을의 북쪽으로는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로 통하는 고갯길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 고갯길은 소반배골이라고 불린다.

현재 천광리는 증평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면서 마을은 없어지고 서너 집만이 남아 있다.

천광 마을의 입구에 선돌이 4개가 있었다고 한다. 선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도사(道使)가 마을을 찾아 먹을 것을 요구하자, 청주한씨는 먹을 것을 주지는 않고 거름을 퍼내며 박대를 했다. 도사는 돌아서면서 선돌을 세우면 한씨네가 매우 잘 될 것이라고 혼잣말로 지껄였고, 이를 들은 한씨네는 마을에 4개의 선돌을 세웠다. 선돌을 세우자 마을은 점차 쇠락해 가고 주민들은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나 마을은 끝내 폐허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지나 안천광으로 들어서면 2003년까지 선돌 1개가 남아 있었다. 선돌은 윗넓이 16cm, 아랫넓이 40cm, 높이 90cm의 크기로 사다리꼴의 형태이다.

천광마을의 광덕소류지(천광저수지)는 1967년에 축조되어 덕암과 모산 마을에 농업용수 및 저수지 축조 이후 수해가 줄어드는 등 많은 혜택을 주었으나 최근 증평쓰레기매립장 건설로 매립됐다.

6. 도당리(道塘里)

도당리(道塘里)는 본래 조선시대 때 청안현 북면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기록에는 충청도 청안현 북면에 33개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송정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금당리(金塘里), 진암상리(鎭巖上里), 진암하리(鎭巖下里), 한성은행정리(漢城銀杏亭里) 등 4개리가 있었다. 그 뒤 도당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북면(北面)에 속하게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서도 당시 청안군 북면은 33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진암상리(鎭巖上里)·진암하리(鎭巖下里)가 진암리(鎭岩里)로 합쳐졌으며, 한성은행정리(漢城銀杏亭里)는 은행정리(銀杏亭里)로 변경됐고, 도암리(道岩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주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면의 금당리(金塘里), 도

암리(道岩里), 진암리(鎭岩里), 은행정리(銀杏亭里)의 일부와 청안군(淸安郡) 근서면(近西面) 명암리(鳴岩里) 일부, 괴산군(槐山郡) 서면(西面) 진암리(眞岩里) 일부를 병합하여 도당리의 도(道)자와 금당리의 당(塘)자를 따서 도당리라고 하고 괴산군 도안면에 속하게 됐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괴산군 도안면 도당리가 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도안면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도당리는 도안지소(道安支所)의 행정구역이 됐다.

그리고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3개월 뒤인 2003년 8월 30일 증평군(曾坪郡)이 공식 설치되어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가 됐다.

1) 금당리(金塘里)

도당 1구는 금당과 좌실 두 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마을은 약 15년 전에 통합됐다.

금당리와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금당리(金塘里)가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도 금당리(金塘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동네의 역사는 오래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때 금당은 청안과 사리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²⁹⁾ 현재 마을이 들어서 있는 도로가를 중심으로 고깃집, 포목집, 주막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으며, 특히 금당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 신분이 낮은 사람은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서 마을을 지나갔다고 한다. 이 마을

이 당시 얼마나 번창했는가는 1970년대 말 도로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주춧돌이 나왔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금당이라는 지명이 암시 하듯이 마을에는 못(池)이 하나 있었다. 옛적 이 마을에는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도사가 지나가면서 못을 파면 화재가 멎을 것이라고 하여 마을에 못을 팠는데, 그 후로는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금당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난 듯하다. 못의 물이 많을

29) 금당 동쪽에 있는 산인 수재산에는 토성이 남아 있다. 현재는 남쪽 계곡 부를 제외한 동·서·북쪽에 삼태기 모양으로 토루(土壘)가 남아 있다. 이 산성 동쪽으로는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 북쪽으로는 음성군 백마령, 남쪽으로는 증평시내, 서쪽으로는 이성산성이 한 눈에 들어온다. 조선시대 이전 괴산 사리면·수재산성·이성산성·두타산성·진천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交通路)로 추정된다.



도안면 도당1리(금당) 전경

때에는 농수용으로 쓰기도 했으나, 물이 점점 메말라 버려 쓸모없게 되자 5년 전 마을 공사를 하면서 못을 메웠다고 한다. 그 못은 현재 마을회관(경로당)우측에 있었던 것으로 못을 메우고 뚜껑을 덮어 놓은 흔적만이 보일 뿐이다.



도안면 도당1리 수도사 전경

금당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좌실이 다. 이 마을의 지명과 관련된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옛날 좌수가 이 마을에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가 하면 좌실 앞 도로변 주막거리 즉, 지금의 버스승강장을 중심으로 술집, 떡집, 밥집, 목을 파는 집 등이 도로 가에 형성됐는데 과객들이 이 주막거리에 모여앉아 놀다 간다고 하여 좌실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하는 이도 있다. 그 당시에는 마차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이었는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 주막거리가 사라져 지금은 자취조차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1) 새터

중평농협 벼 건조센터 맞은편 세 채의 가옥이 있는 곳을 말한다. ‘새터말’은 새로 잡은 터에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다.

(2) 골말

서낭당이 아래쪽의 마을로 골말은 골짜기를 뜻하는 골과 마을을 뜻하는 말 이 결합된 형태로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안말

마을회관이 자리 잡은 곳이다. 안말은 안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이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4) 웃말

마을회관 뒤편의 느티나무가 있는 곳으로 마을이 위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5) 서당골

마을이 위쪽에 서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금당서원이 있던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나 확실하지 않다.

(6) 좌수골

서낭댕이에서 100m지점의 좌실 쪽에 있다.

(7) 서낭댕이

좌실로 넘어가는 고개에 큰 나무가 있고, 예전에 서낭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 둔터골

마을 회관에서 오른쪽으로 서너 채의 가옥이 산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양축협 창고가 있는 것이다.

(9) 새골

둔터골을 조금 지난 골짜기를 말한다.

(10) 옹기점골

좌실 마을의 오른쪽 산을 이르는 것으로, 예전에 이곳에서 옹기를 구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1) 주막거리

좌실 입구 충북어린이집 맞은 편 버스승강장 자리를 말한다. 예전에 술, 떡 등을 팔던 주막이 늘어서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2) 방구배기

좌실의 마을회관 앞 논에 있는 바위의 이름이다. 방구는 바위의 방언이다.

2) 도암리(道岩里, 막골)

도암리는 도암과 도토성 2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도암리(道岩里)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마을은 1912년 무렵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도암리는 막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쪽으로부터 칠보산맥을 타고 내려 온 산맥이 마을 상단 남쪽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3면을 가로막았고, 마을 끝에 와서 양쪽 산맥이 끝났다 하여 막



도안면 도당2리 전경

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한 이 마을에는 지금의 도당리 621-3번지에 도암사라는 절이 있어서 도암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 이곳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 연장희에 의하면 30년 전 밭을 일굴 때만 하여도 절을 떠받쳤던 주춧돌이나 기왓돌이 나왔다고 한다. 이 절이 어느 때에 지어져 언제 없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고, 다만 동네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현재도 그곳에 가면 검은 기와조각들을 볼 수 있다.

3) 도토성(道土城)

도암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토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라 하여 마을 이름이 유래됐다.

4) 은행정(銀杏亭)

은행정 마을은 도당리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마을 뒤편으로는 수성산이 감싸 안고 앞으로는 내가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살기 좋은 터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다.

은행정리와 관련된 지명은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한성은행정리(漢城銀杏亭里)가 있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을 살펴보면 한성은행정리(漢城銀杏亭里)는 은행정리(銀杏亭里)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정이란 마을 이름은 이 마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의 수령은 450년이며, 높이는 10m, 나무의 둘레는 6m이다. 1982년 11월에 군나무로 지정됐다. 이 은행나무는 수 백 년 동안 은행정 주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살아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매해 정월 13일에 나무에 고사를 지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한다.



도안면 도당3리(은행정) 전경

7. 연촌리(硯村里)

연촌리는 본래 조선시대 때 청안현 북면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 기록에는 충청도 청안현 북면에 33개



도안면 연촌리 전경

의 동리가 있었다. 그 중에서 현재의 연촌리와 관련된 마을로는 연치리(硯峙里) 1개리가 있었다. 그 뒤 연촌리는 건양(建陽) 원년(1895)에 청안현(淸安縣)이 청안군(淸安郡)으로 승격되면서 청안군의 6개 면인 읍내면(邑內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서면(西面), 근서면(近西面)중에서 북면(北面)에 속하는 지역이 됐다.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서도 당시 청안군 북면은 33개리를 관할하고 있었다. 그 사이 점촌리(店村里)가 새로 생겼다.

1914년 일본제국주의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북면의 연치리(硯峙里), 점촌리(店村里) 일부를 병합하여 연치리와 점촌리의 이름을 따서 연촌리라 하고 괴산군 도안면에 속하게 됐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1월 17일 법률제8호로써 「지방 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괴산군 도안면 연촌리가 됐다.

1990년 12월 31일 충청북도조례 제1864호에 의거 괴산군 도안면에서 충청북도증평출장소(忠淸北道曾坪出張所)로 바뀔 때, 연촌리는 도안지소(道安支所)행정구역에 속하게 됐다.

2003년 8월 30일 법률 제6902호 『증평군설치에 관한법률』에 의거 증평군이 설치되므로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가 됐다.

연촌리 마을은 1985년 원남 저수지가 완공되면서 마을과 도안초등학교 연촌분교 등이 수몰됐다.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도안, 증평, 청주 등지로 떠난 상태로 현재는 세가구 6명 만이 거주하고 있다.

1) 외연(外硯, 바깥벼루재)

벼루재 바깥쪽(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이다. 현재는 1985년에 만든 원남저수지로 인하여 수몰됐다.

2) 내연(內硯, 안벼루재)

벼루재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을이다. 연촌리에서 가장 컸던 마을로 현재는 1985년에 만든 원남저수지로 인하여 수몰됐다.

3) 점촌(店村)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점촌(店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12년 경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로 보인다.

4) 연현(硯峴, 벼루재)

노암리에서 연촌리 사이의 고개다. 연촌리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도안면 연촌리 연촌 성황당 전경

제2장 강·산 이름의 유래

라경준집필

제1절 강 이름

제1절

1. 보강천

보강천(寶崗川)은 증평군의 중심 하천(河川)이다. 즉 보광천은 증평 중심부를 동·서로 구분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보광천은 괴산군 사리면 백마산과 보광산에서 발원한 부석천(浮石川), 도안면 연암산에서 발원한 연암천(硯岩川)이 합류하여 만들어진 하천이다. 이 하천은 도안면 삼거리에서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에 흐르고 있는 미호천까지의 길이 12.5km를 말한다.

보강천(寶崗川)의 명명(命名)은 1927년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조선 하천령(朝鮮河川令)’에 의해 정해졌으며, 총독부고시 제 139호를 통해 보강천의 기점은 괴산군 증평면과 도안면의 경계이고, 종점은 미호천(美湖川)으로 금강(錦江)의 제2지천으로 지정됐다.³⁰⁾

보강천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에 반탄천(磻灘川)으로 기록되어 있다.³¹⁾ 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在縣西二十七里其源有三一出鎭川縣北一出陰城縣朴伊峴一出坐龜山流入淸州吳根津

즉 “반탄천은 청안현 서쪽 27리에 위치한다. 발원지는 3곳이다. 하나는 진천



보강천 분수대

30) 朝鮮總督府, 『朝鮮 河川令』, 朝鮮總督府, 1927.

31) 金顯吉 編著, 『忠淸北道輿地集成』, 忠北郷土史研究協議會, 1994.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



증평문화제시
배띄우기 경연모습

현 북쪽에서 발원하고, 하나는 음성현 박이고 개에서 발원하며, 하나는 좌귀산에서 발원하여 청주 오근진으로 유입된다.” 라고 기록돼 있다.

보강천(寶崗川)은 옛날부터 증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증평을 거쳐 간 사람들에게 애환과 추억을 만들어준 증평의 젖줄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물장구치고 물고기 잡으며 뛰어 놀던 곳이며, 7월 백중(百中) 날이면 백사장에서 씨름과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

와 난장(亂場)이 있었던 곳이다. 또한 37사단이 증평에 주둔하면서 증평을 거쳐 간 훈련 장병들의 고된 훈련을 씻는 ‘요단강다리’의 추억을 오래도록 가슴 깊이 간직케 하는 명소였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꽃과 나무들의 식재된 자연공원과 테니스장·롤러스케이트장·잔디축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공원이 개발되어 한층 증평군민의 품으로 다가왔다.

2. 삼기천(三岐川)



삼기천

삼기천(三岐川)은 좌구산(座龜山)에서 발원하여 사곡교에서 보광천에 합류하기까지의 길이 13.5km 하천을 말한다. 이 하천은 증평군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수질이 좋고 주변경관이 수려하다.

삼기천과 관련된 기록은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지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때에 삼기천은 증자천(曾子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고종 원년(1865)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유일하게 기록돼 있다.³²⁾ 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曾子川出椒峴西流往縣前過松五里峴水入于礪灘之下流’

즉 “조정고개 서쪽에서 발원하여 청안현 앞으로 흘러내려, 송오리고개를 지난 후 송오리 고개에서 발원한 물과 합류하여 반탄천으로 흐른다.”라고 기록돼 있다.

32) 金顯吉 編著, 『忠清北道
輿地集成』, 忠北鄉土史
研究協議會, 1994.

삼기천의 이름은 마을마다 틀리다. 그 마을의 이름을 따서 불리왔기 때문이다. 발원지에서 울리 저수지 밑까지는 삼기천(三岐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울리 저수지 밑에서 죽리 초등학교까지는 장천(長川) 혹은 장내천(長內川)³³⁾이라고 부른다. 또한 죽리초등학교에서 사곡교까지는 증자천(曾子川) 혹은 증천내(曾川內)로 불리어 지고 있다.

3. 연암천(硯岩川)

연암천(硯岩川)은 두타산(頭陀山)과 종지봉에서 발원한다. 이 하천은 발원지에서 동남쪽으로 흘러 내려오다가 음성군과의 경계인 백마령에서 실하천과 합류하여 도안삼거리의 보강천(寶岡川)에 이르기까지의 약 8km 구간을 지칭한다.

연암천(硯岩川)의 명명(命名)은 도안면 노암리(老岩里)에서 조선시대부터 벼루돌(硯石)을 채석(採石)했던 벼루재 고개(硯峙)부터 물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벼루 연(硯)자와 바위 암(岩)자를 따서 연암천(硯岩川)이라 부르게 됐다고 전해 오고 있다.

조선시대 각종 기록에는 연암천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근세부터 연암천이라고 불린 것 같다.

이 하천은 도안면의 중심부를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로 지르면서 흐른다. 연촌리 원남 저수지로부터 수로(水路)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도안면 지역에 농경지 경작의 유일한 수로(水路)였다. 상류에는 두타산에서 흐르는 물을 담수하는 연암저수지와 종지봉에서 흐르는 물을 담수하는 송정저수지 등 작은 저수지 두개가 있어서 물로 인한 홍수 피해와 가뭄의 해갈을 조절하고 있다.

33) 정조 13년(1789)에 간행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기록된 장내리(牆內里)가 1912년에 간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 장천리(長川里)로 바뀐 것으로 볼 때, 장내천(牆內川)이 장내천(長內川)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암천

4. 자양천

자양천(紫陽川)은 두타산(頭陀山)·대봉산(大峯山)·이성산(尼城山)에서 발원한다. 이 하천은 자양리(紫陽里)와 미륵댕이를 지나 보강천(寶岡川)과 합류하기까지의 약 4.2km를 지칭한다.



자양천

제2절

제2절 산 이름

자양천(紫陽川)은 삼기천(三岐川)·연암천(硯岩川)과 함께 중평지역의 3대 하천(河川:실개천) 중의 하나로 미암골의 젓줄 역할을 하고 있다. 옛날부터 이 하천의 상류인 자양리 마을에는 따뜻한 물이 매장되어 있어 추운 겨울에도 샘이 얼지 않는다고 전해오고 있다.

1. 이성산(尼城山)

중평에서 도안을 향해 1km정도를 가다가 미암교를 건너 좌측에 위치한 형석중·고등학교 뒤편으로 3km 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이 바로 이성산이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 등에 따르면, 뉴성산(紐城山)이 청안현청(淸安縣廳) 서쪽 2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뉴성산이 곧 이성산이다. 이성산은 중평의 주산(主山)인 두타산에서 갈라져 나온 산이다. 즉 두타산맥의 지맥이 이성산 연봉까지 4km나 뻗어 나와 있는데, 이성산은 남북으로 2개의 쌍봉(雙峰)을 이루고 있다. 이성산에는 독립된 2기(基)의 토성(土城)이 남북으로 400m 쯤 떨어져 형성되어 있다. 이 토성은 이성산성, 뉴성산성, 도안고성(道安古城)³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산성은 중평읍 미암리와 도안면 화성리·노암리 일대에 걸쳐 있다.

34) 『대동지지(大東地志)』 청안현, 성지(城池)편에 뉴성산(紐城山)에 도안고성(道安古城)의 터(遺址)가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金顯吉 編著, 『忠淸北道輿地集成』, 忠北郷土史研究協議會, 1994, 267쪽.



이성산 전경

이성산 북서쪽으로는 두타산 연봉(連峰)의 험하고 가파른 지세에 의지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미호천 일대의 평야를 내려다보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북쪽으로는 두타산성(頭陀山城)이 남쪽으로는 청원군 낭비성(娘臂城)과 구라산성(謳羅山城)이 자리 잡고 있

으며, 남서쪽으로는 청주 정북동토성이 조망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퇴피식 토축산성(土築山城)이다.

일본제국주의시대에 만들어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증평읍 미암리에 이성산이 있으며, 미암리의 동방 10정(町)에 이성산성이 있다. 토축의 산성으로 둘레가 250칸(間), 높이가 1칸(間), 넓이가 4척(尺)이며 완전하다.”고 되어 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전국문화유적총람』에서도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2기의 산성은 남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성(南城)은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으로 이루어졌으며, 외성에서 우물자리의 유구(遺構)와 배수구 시설도 발견됐다. 삼국시대 양식인 고식(古式)의 기와조각, 백제계의 토기조각 및 주춧돌이 발견되어 고려시대 이전까지 현성(縣城) 소재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북성(北城)은 남쪽에 웅성(甕城)을 갖추고 있으며, 백제계통의 조질토기(粗質土器) 및 회색토기가 많이 발견된다. 성의 크기는 남성이 둘레 1,339.5m이고, 북성은 둘레 473.7m이며, 남성 남서쪽의 성벽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벽의 높이 1.4m이고, 두께가 1.5m이고 남성과 북성 간의 거리는 약 400m정도로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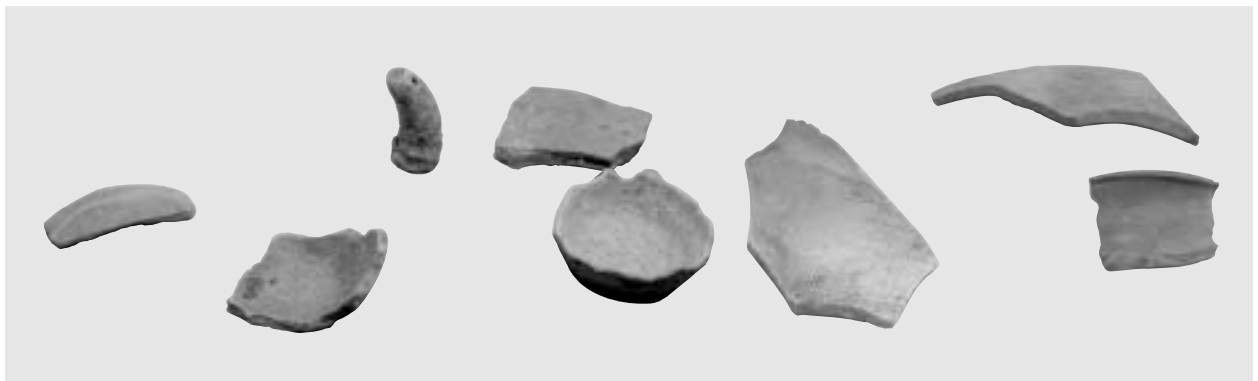
도안면 성도리에는 이성산성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 옛날 고구려군사가 성도리에 내려와서 지금의 도안초등학교 자리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고 한다. 그때의 흔적으로 궁터와 대장간이 얼마 전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성산성은 3세기 후반 백제에 의해 축조되어 6세기 중반까지 백제, 신라, 고구려 삼국이 서로 뺏고 뺏기는 첨예하게 대립하던 군사적 요충지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성산성은 좌구산맥의 서쪽에 위치하여 남서쪽으로 흐르는 보강천 주변의 장뜰에서 펼쳐지기 시작하여 청주, 청원을 지나 조치원까지 이르는 넓은 미호평야를 한눈에 감지할 수 있는 최북단의 산성이어서 삼국이 모두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태조가 즉위하고 23년(923)에 이성산성을 중심으로 도안현(道安縣)을 설치하였던 것을 보아도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를 알 수 있다.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



이성산성 북성에서 출토된 회색토기편

이와 같이 이성산성은 증평군의 오랜 역사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유산이요, 보물 산성이다.

2. 대봉산(大峰山)



대봉산 전경

대봉산은 정기(精氣)가 가득히 흐르고 있는 증평 지역의 영산(靈山)이다.

대봉산(해발 355m)은 두타산 정상과 TV송신탑 중간쯤에서 증평을 향하여 남쪽으로 뻗어내린 가파른 산줄기를 따라 약 800m 내려오다가 갑자기 솟대처럼 뽕족하게 솟아오른 산이다. 송산리·송오리나 미암리 대지랭이에서 오를 수 있으나 경사가 급하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 『충청도각군읍지(忠淸道各郡邑誌)』에서는 대봉산을 “금대야봉(金大也峯)”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 산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했다.

‘金大也峯在縣西十三里離祖斗起其高千丈上有湧川歲旱祈則必雨’

이 말을 해석하면 “금야대봉은 청안현에서 서쪽으로 13리에 위치에 있고 뽕족하게 툭 튀어올라 남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높이는 1,000장(해발 300m)이다. 산 정상에는 샘이 솟아 흐르며, 가뭄이 드는 해에 기도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농수관리 시설의 미비로 그 해의 풍·흉년을 하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비가 오지않아 한해(旱害)가 드는 해이면 고을의 행정책임자(현감, 면장)가 대봉산에 올라가 기우제(祈雨祭)를 지내었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내려 가뭄이 해갈되었고, 가을이면 풍년이 들었다고 하여 그 고마움으로 이 산에 올라가 감사제를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이 산에는 팔대에 걸쳐 장군이 나온다는 명당 묘터가 있는데 여기에 묘를 쓰게 되면 묘를 쓴 자손들은 잘 되나 마을에는 큰 변이 생기거나 오랜 가뭄이 온다고 전해져 왔다.

1977년 7월에 증평뜰 들판에 곡식이 말라 죽어가고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가뭄이 들었다. 중평지역 마을 사람들은 대봉산 명당 묘터에 누군가 암장(暗葬)을 했기 때문이라고 믿었고, 대봉산에 올라가보니 과연 명당 터에 봉분(封墳)도 없이 평장(平葬)으로 암매장(暗埋葬)한 흔적이 있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파묘(破墓)를 하자마자 먹구름이 몰려들면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가뭄을 면했다. 그 후에 유골(遺骨)의 주인이 충북 보은군에 사는 이씨(李氏)로 판명되고 파묘(破墓)로 인한 시시비비가 법정으로 번지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이 산에는 금(金)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채광하거나 굴을 뚫게 되면 마을이 망하거나 행위자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구전(口傳)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렇듯 대봉산이 영산(靈山)이라는 것을 안 일본 관리들이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대봉산의 정기(精氣)와 혈(穴)을 끊기 위해 대봉산 줄기 여러 곳에 쇠못을 박아 놓았다 한다.

3. 왕기봉(王起峰)

왕기봉(王起峰 : 해발 520m)은 두타산 줄기의 한 작은 산봉우리이다.

왕기봉(王起峰)은 육군 제 37사단 사령부 뒤쪽의 산줄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두타산 줄기 가운데 중평 쪽을 향해 솟아 있는 봉우리이다. 이 산이 바로 왕이 일어난다는 왕기봉산이다.

이 산봉우리는 두타산이라는 너무 큰 명산(名山)에 묻혀 그리 흔하게 알려지지 않은 산이다. 그렇지만 풍수지리에 해박한 전국의 유명한 풍수학자나 지관들 사이에서는 왕기봉의 지혈은 왕(王)이 일어날 수 있는 영산(靈山)으로 전해 내려왔다.

오랜 옛날부터 연탄리와 송산리, 진천군 진암리 마을의 연로한 주민들의 구전(口傳)에 의하여 왕기봉에서는 왕이 일어나고 국사봉(國祀峰) 탑선리 마을 건너편 앞산인 씨앗골(봉우리)은 나라의 일을 보는 곳이며, 진천군 진암리의 구정벌에서는 아홉정승이 살게 될 곳이라고 했다. 또한 우군리에는 나라의 우군(右軍)이 있는 곳이며, 송산리 뒷산인 대봉산(大峰山)에는 장군들이 은거하며 나라의 좌군(左軍)이 머물 곳이라 했다.



왕기봉 전경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유명한 지관이 현재 사단사령부 사단장 집무실 자리가 장군대좌형(將軍大坐型)의 명당(明堂)터여서 그 곳에 아무도 모르게 가묘를 써서 관리해 오다가 근세에 37사단이 들어 올 때 그 묘는 파묘 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4. 삼보산(三寶山)



삼보산 전경

삼보산(三寶山)의 산 이름은 세 가지 보물을 지니고 있다하여 삼보산이라고 명명되었으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는 삼보봉(三寶峰)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삼보산은 좌구산에서 구녀봉을 이으면서 내려온 산줄기의 아래쪽에 위치한 해발 273m 높이의 산이다. 이 산은 청원군 내수읍·북이면과 증평군 증평읍 등 3개 읍·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삼보산을 오르려면 마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지만, 약 1km 쯤 떨어진 죽리초등학교 방향에서 오르는 것이 가장 편하다.

삼보산은 염실 방향에 있는 제1봉(해발 250m), 남하리 서당골 방향에 있는 제2봉(해발 273m), 죽리 방향에 있는 제3봉(해발 255m) 등 3개의 작은 봉우리들로 형성되어 있고 제2봉이 삼보산의 정상이다.

삼보산에는 물, 금광석, 산골(地穀巖石) 등 3가지 보물이 난다고 해 삼보산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첫째의 보물인 물은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에서 개발한 세계 3대 광천수인 천연약수와 남하리에서 나오고 있는 탄산약수다.

초정리에서 나오는 광천수(鑛泉水)로 목욕을 하고 지속적인 복용을 하면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력이 있어 일찍이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117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이용함으로 눈병과 피부병을 고치셨다고 한다. 남하리의 탄산약수는 특히 위장병에 효험이 지대하다고 하여 진로에서 석수로 개발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두 번째의 보물은 금이다. 삼보산에는 금광석이 많이 매장돼 있으나 안동 김

씨 종산으로 조상들의 묘소가 많고 자연 환경의 파괴를 우려해 안동 김씨 문중에서 금 채굴을 금하고 있다. 구전(口傳)에 의하면 금 채굴을 못하도록 개를 잡아서 개피를 온 산에 뿌려놓아 금을 도굴하여도 그 금이 사금(砂金)으로 변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 채굴하지 않는다고 한다.

세 번째의 보배는 산골이다. 산골은 광물질로 뼈가 골절됐을 때 접골재로 쓰이며, 풍치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담배에 섞어서 피우면 치료되는 무기물이다. 이 산골은 우리나라 몇 곳에서만 생산되는 한방치료재로 구하기 힘든 약재로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에서 산골을 채굴하고 있다.

5. 두타산(頭陀山)

두타산(두타산 : 해발 598.3m)은 백두대간에서 뺨어 내린 노령산맥의 한 줄기이다. 이 산은 해발 448m, 해발 598.3m, 해발 509m, 해발 551m, 해발 520.5m의 산봉우리가 군락을 이루면서 진천군과 증평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조선시대 관찬(官撰)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에 청안현청(淸安縣廳) 서쪽 20리에 위치하며, 진천군과 경계를 이룬다고 기록돼 있다.

두타산에서는 증평평야·진천평야와 충남 조치원에 이르는 미호천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 산은 금강(錦江)의 발원지 중 하나인 도안면 노암리(벼루재)에서 발원하는 연암천(硯巖川), 미암리(대지랭이)에서 발원하는 자양천(紫陽川), 보광산에서 발원하는 부석천(浮石川), 울리의 좌구산에서 발원하는 삼기천(三岐川)과 청안천(淸安川) 등이 합류한 보강천을 끼고 있다.

두타산의 유래는 중국의 최고의 지리서적인 『산해경(山海經)』의 해외동경(海外東經)편에 의하면 “칠년홍수 치산치수 단군신평우(七年洪水 治山治水



두타산 겨울 설경

檀君臣彭虞)”라고 기록돼 있다. 이것을 해석하면 지금으로부터 4,300여년 전 단군할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 오랫동안 장마로 물난리를 겪었고, 이 지역도 평해(平海)로 변하니 백성들이 가장 높은 산으로 모여들어 수난을 피했다고 기록됐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홍수(大洪水)때 이 산의 산봉우리가 섬같이 보였다고 하여 머리 두(頭), 섬타(陀)자를 따서 두타산이라고 부르게 됐으며, 또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도와준 산이라 하여 일명 가리도(加利島)라 부르기도 한다.

당시 배가 진천과 증평쪽을 넘나들던 고개를 “배 넘어 고개”라 하여 오늘날 까지도 부르고 있다.

두타산 정상에는 석성(石城)으로 된 두타산성이 있는데, 산성의 둘레는 913m, 높이는 1.2m, 폭은 2.7m로 남문과 동문지(東門址)가 있으며, 남문지(南門址)의 왼쪽에는 적 침투방위를 목적으로 축성된 두 곳의 토루(土壘)가 있다. 성내에서는 삼국시대의 경질 토기 조각과 고구려시대 및 통일신라의 토기조각이 발견된 바 있고, 아직도 두개의 우물터가 남아 있다.

두타산성은 신라장군 실죽(實竹)이 486년 이찬(伊飡)에 임명되어 백제군을 막기 위하여 쌓았다는 전설이 있다. 실죽 장군은 보은의 삼년산성(三年山城)과 굴산성(屈山城)을 개축하기도 하고 살수지원(薩水之原) 및 우산성(牛山城)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두타산 정상부근에는 상취(上娶)의 기(氣)가 있다고 하여 정상부근과 내려온 줄기의 대봉산을 비롯한 곳곳에 명당을 찾아 쓴 묘(墓)들이 산재해 있다.



미암리에서 본 두타산 전경

6. 좌구산(座龜山)

좌구산(座龜山)은 해발 657.4m로 증평군 산 중에서 최고봉(最高峰)이다. 이 산은 증평군·청원군·괴산군 등 3개 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좌구산은 증평군의 동쪽과 북쪽을 에워싼 까막산 줄기(칠보산·보강산·백마산·종지봉·두타산)의 거봉(巨峰)이다.

이 산과 관련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

(輿地圖書)』, 『대동지지(大東地志)』,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에 기록되어 있다. 즉 좌구산(坐龜山)은 청안현청(淸安縣廳) 남쪽 1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와 경계를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산의 정산에서 서쪽 방향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인 망월대(望月山 : 해발 459m, 일명 망탑봉 望塔峰)에서 올려다보면 산의 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앉을좌(坐), 거북 구(龜)자를 써서 좌구산(坐龜山)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개구(狗)자를 써서 좌구산(座狗山)³⁶⁾이라고도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조선 광해군(光海君)때 정3품인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지냈던 김치(金緻:1577~1625 충무공 진주목사 김시민의 양아들)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온다. 점술(占術)과 천문(天文)에 능한 김치는 광해군(光海君)의 학정이 날로 심해질 즈음 신변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관상을 보니 이듬해인 인조반정의 해(1623년)에 죽게 되는지라 관직을 사직하고 좌구산 밑의 율리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이때에 김치는 한양의 심기원·최명길 등과 내통하여 인조(능양군) 반정을 밀의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김치에게 심기원이 찾아와 능양군(仁祖)의 사주와 반정(反正)을 일으킨 일자를 점쳐 달라고 했다. 이에 김치는 물치 폭포에 가서 목욕재계하고 점을 쳐보니 능양군(仁祖)이 임금 될 패인지라, 반정일자를 천과일(天破日)로 정하여 주고 반정 밀담을 나눈 뒤 일행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졌다. 이 때에 한 밤중에도 동편 좌구산에서 개가 세번이나 크게 짖어대므로 잠에서 깨어 누가 염탐하러 온 것을 알고 그 곳을 즉시 피하여 무사했다고 한다.

그 후 김치는 이 산을 거북 구(龜)자 좌구산(座龜山)이 아니라 개가 짖음으로 사람을 구하고 나라의 큰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준 명산(名山)이니 개구(狗)자를 쓴 좌구산(座狗山)이라고 부르도록 했다고 한다.



좌구산 전경

36) 『여지도서(輿地圖書)』,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호서읍지(湖西邑誌)』에는 좌구산(坐龜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7. 망월산(望月山)

망월산(望月山 : 해발 459m)은 단종 복위가 실패로 끝나자 화(禍)를 두려워하여 봉천리(奉天里)로 피난 온 하음 봉씨들이 어린 임금 단종의 폐위에 대한



망월산 전경

애절함과 강화도에 있는 조상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고향 향수를 달래주던 충효(忠孝)가 서려 있는 산봉우리이다.

망월산은 하음 봉씨(河陰奉氏)들이 산봉우리 정상에서 아침·저녁(朝夕)으로 한양(서울)을 향해 폐위된 임금에 대한 예로써 충절을 표하고, 흩어진 친족들의 무사함을 빌며, 조상들을 기리기 위해 제를 올리던 곳이어서 일명 망월탑(望月塔)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이 산은 증평읍 봉천리에서 서쪽으로 약 1km 쯤 떨어진 좌구산 줄기의 산봉우리 중의 하나이다. 이 산을 가려면 증평에서 청안을 지나 청천쪽으로 가기 위해 부흥고개를 오르다 보면 독가촌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봉천사 입구라는 간판을 따라 경사가 매우 급한 고개(질마재고개)를 넘으면 봉천리가 나온다. 또 다른 한 방법은 증평에서 울리를 거쳐 물치 폭포를 지나 1.5km 쯤 가면 봉천리가 나온다. 봉천리는 외봉천리와 내봉천리 2개의 마을로 되어 있는데 망월산은 외봉천리에서 서쪽으로 약 1km 쯤 능선을 따라가면 증평평야와 청원군의 미호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확트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작은 산봉우리다.

교통편은 두 방향이 모두 시멘트 포장에 돼 있으나 35도 이상의 경사진 도로로 1~2km를 올라가야 한다. 양 방향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보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8. 안자산(顔子山)

안자산(顔子山)³⁶⁾은 해발 약 110m의 동산이다. 이산은 두타산(頭陀山)의 TV 송신소에서 보강천(寶崗川)을 향해 급경사로 내려오는 산줄기 아래가 나지막해지면서 등고선이 완만한 산자락 중간쯤에 위치한다. 안자산은 사람의 이마처럼 둥굴 넓적한 모양으로 시원하고 평안한 정감을 주는 작은 야산(野山)이다.

이 산과 관련된 조선시대 기록은 고종 원년(1865)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동지지(大東地志)』가 유일하다.³⁷⁾ 이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일설(一說)에 의하면 산세가 크고 높은 두타산 아래 곱고 완만하게 내려앉아 있는 형세라 하여 안자산(顔子山: 안자좌)이라 불렀다고 한다.

37) 金顯吉 編著, 『忠清北道輿地集成』, 忠北郷土史研究協議會, 1994, 267쪽.

‘顔子山 西十五里’

즉 “청안현청(淸安縣廳)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자산 전경